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2 2018

VOL. 270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4 Rear Camera Phone*

SAMSUNG Galaxy A7 | A9

Capture life differently



2X Telephoto
(10 MP)



Ultrawide Angle
(8 MP)



Low Light
(24 MP)



Bokeh
(5 MP)



www.GalaxyASeries.com

*4 rear cameras only available on Galaxy A9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f](#) Samsung Indonesia | [t](#) SamsungID | [@](#) Samsung_ID | [v](#) Samsung Indonesia

TRANSFER FASTER

go korean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SKY TEAM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화 : (021) 521-2515, 527-2054

팩스 : (021) 526-8444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남태평양의 피지섬에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두개의 시점이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들른 사람들은 밤줄을 잡고 왕복운동을 하면서
미래와 현재를 오가는 장난아닌 장난을 즐긴다고 합니다.

12월입니다.

마치 무언갈 결정하고 내딛는 것 같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한주, 한달, 일년이란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고보니 진자운동처럼

흐름에 몸을 맡겼던 것 같은 움직임이
그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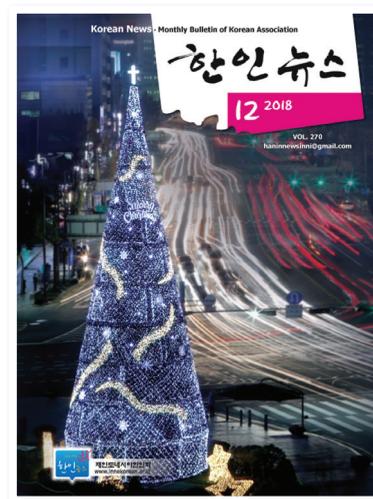
편집장 홍석영

차례

- 8 논설위원 칼럼 - 자원개발사의 시작과 끝 <김문환>
- 12 편집위원 칼럼 - 조코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실적 <황윤홍>
- 16 신성철 칼럼 - [서평]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
- 18 이해창 경제칼럼 - 유가? 어-경-철
- 24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14
- 28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34 ANEKA MASAKAN KOREA - 신선로 <양소연>
- 38 자카르타 맛집탐방 - The Royal Kitchen <주윤지>
- 40 행복에세이 - 한해가 저무는 노을 끝에서 <서미숙>
- 45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박경재>
- 48 보너스로 살게 된 인도네시아 <김영은>
- 53 1박2일 자카르타 문화답사기 <평수진>
- 60 JIKS 소식
- 61 JIS 소식 <신재우>
- 62 인도네시아 회사법 (268) <이승민>
- 69. 생활정보

한인사회 이모저모

- 한인사회 이모저모
- 2018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10
- 땅그랑 반트 한인회, 한인회 밤 20
- 독도 합동 홍보단 22
- 제6회 재인니한인청년회 송년의 밤 행사 32
- 제18기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워크샵 33
- 2018 'Talk Talk Korea'
- 한국외대 글로벌 CEO 과정 연말행사 42
- 2018 코원총회
- 코원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43
- 문예총, Palu 성금전달 44
- Harmony through Friendship 50
- 장애인아시아게임 관련 감사장 수여 및 시상식 56
- 아시아게임 관련 감사패 수여식 57
- 보딩패스 출간 58
- '인도네시아 문학' 제5집 출간 기념식 59
- 복주머니 작가 초대전 64
- 2018 Korea Art Quilt Festival 65



2018 서울역광장 크리스마스트리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자원개발사의 시작과 끝



김문환/논설위원

수하르토 군부가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67년 1월 해외투자법(UU No.1/1967 tentang PMA)이 제정되었고, 3개월 후 미국 뉴올리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사의 로버트 힐스(Robert Hills) 사장과 인도네시아 광업부장관 슬라멧(Slamet) 사이에 서부이리안 미미카 지역의 에르츠버그(Ertsberg) 광업개발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다. 이 계약은 30년 기한으로 체결되어 중간에 2021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강도채광을 위해 대규모 추가투자를 전제로 추가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비슷한 시점인 1967년 5월에는 산림개발에 관한 법률 제5호(UU No.5/1967 ketentuan2 pokok kehutanan)가 제정되어 1967년 국경분쟁중인 말레이시아 경계지대인 따라간 인근지역에 무려 1백만 헥타르의 면적을 육군공제회에 부여한다. 그러나 사기업에 대한 산림개발권은 장관령 제54호에 의거 1968년 VALGOSON, PORODISA, KODECO 3사에게 부여된다. 발고손사는 당시 필리핀대통령의 후원을 받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기업이었으며, 뽀로디사사도 군부와 연결된 특수관계 회사였으나, 코데코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사기업이었다.

1,2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세계 각국 정부가 장기적인 원유수급대책을 모색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있을 당시,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실을 보아 1981년 4월 코데코에너지사가 설립되어 서부마두라 유전개발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다음해인 1982년 9월 주식회사 삼탄은 키데코 자야 아궁(PT.Kideco Jaya Agung)이라는 현지법인을 내세워 동부 깔리만판 주 빠시르 탄광 개발권을 획득한다. 애초 5개사 콘소시엄으로 시작한 키데코사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산성과를 보지 못하자 재편되어 주식회사 삼탄이 단독경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어 2천년 대에 이르러 큰 성공을 보게 되었다. 창업 당시 산과역을 담당했던 장달수 당시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출장 차 들른 대구시내 금오호텔에서 큰 화재사고를 당하여 일가족이 모두 희생당하는 불운을 맞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계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투자 역사는 산림개발부터 시작하여 유연탄개발에 이르기까지 끈끠하게 지켜 왔으나,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민족주의 색채가 짙어지면서 자원, 금융,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제한조치가 속속 등장하곤 하였다. 미국정부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공룡기업 프리포트사의 최근 향배를 지켜보는 동종업체들의 얼굴표정은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년 광업법개정에서 의무화된 개별적인 재네고 협상이 3년반을 끈 결과가 7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프리포트사는 최초 계약내용을 들이밀었지만 기 보유하고 있던 90.64%의 지분 중 최소한 51%의 지분을 알미늄 생산업종 국영기업인 이나룸(Inalum)에 넘기기로 약정이 된 것이다. 산림개발권(HPH)을 외국인인 소유할 수 없다는 제한조치는 벌써 198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부마두라 유전도 30년 기한이 도래한 2011년에 다수지분과 경영권을 빠르따미나사에 넘겼고, 여타 오일가스 업종에 대해서도 기한이 도래되는 대로 지분매각(Divestment) 원칙이 확고부동하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키테코사도 작년 연말 단지 9%의 지분만 남기고 경영권을 넘겼다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자원부국, 인구대국으로 상징되며 미래의 경제대국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세대교체를 맞고 있는 한인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순응하며 세찬 파도를 헤쳐 나갈지 각별한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김문환/논설위원

2018년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 전민식 후보, 제6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으로 당선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양영연) 는 11월29일 쉐라톤 간다리아시티 호텔에서 ‘2018년도 이사회 임시총회’ 를 개최하고 제6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선출을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사회는 1부, 국민의례에 이어 한인회임원과 선관위 소개, 2부에서는 한인회장 입후보자 선출과보고, 투표와 개표절차 설명, 입후보자 기조연설,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낙선자 인사, 당선자 인사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12명 가운데 88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전민식 후보가 57표, 최병우 후보가 31표를 얻었다. 투표결과에 따라 다득표 한 전민식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전민식 차기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한인사회가 걸어온 경로를 무시하여 얻는 가치보다는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했을 때, 더욱 값진 결과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의 다하겠다” 며 “함께 가는 한인회! 먼저 다가가고 화합하며 나누는 한인회가 되도록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 고 밝혔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차기 회장단에게도 체계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전민식 차기 한인회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코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실적 야당 비판에 대한 정부 반론과 전문가 평가

글: 편집위원 황윤홍

지난 2017년 4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당시 기독교인으로 화교 주지사 아혹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되었던 종교, 민족 문제는 내년 4월 실시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이상 뜨거운 선거 재료가 될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반 들어 야당과 이의 지지세력은 조코위 정권하의 경제 정책과 실적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대한 정부 반론과 경제 평론가 진단을 정리 소개한다.

1.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분야 성과

지난 독립기념일 (8월17일) 전날 국민협의회 (MPR) 에서 행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정권발족 이후 달성한 경제 실적을 강조하며, 특히 빈부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그간의 개발 성과를 전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 집권 전 2014년 68.90 이었던 ‘인간개발지수 (HDI)’ 가 2016년 70.81로 상승하였고, 소득불균형 측정 ‘지니 계수’ 도 2014년 0.414에서 2017년 3월에는 0.393으로 낮아졌다. 2015년 3월 2,859만명이던 빈곤층이 2017년 3월 2,777만명으로 줄었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2014~2016년 평균 5.0% 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했다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현정권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치하했다.

특히 5% 대 성장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율 3.5% 대를 유지하는 질 높은 경제 성장 실현이 가능했으며 인플레이율도 전 정권하 8.3% 에서 3.15%로 낮추고 빈곤율은 11.25% 에서 9.82% 로 떨어졌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국가 순위’ 에서도 인도네시아는 2018년 72위로 (집권 전 120위) 무려 48 계단 개선 되어 ‘국제 투자적격 레이팅’ 도 크게 개선되었다.

투자환경 개선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허가 제도의 개선,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실시와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1,230만 기업에 총 299조9천억루피아의 자금 공급이 이뤄 졌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택78만채를 공급하였고, 저금리 주택 대출, 계약금 보조, 세금우대 정책을 이미 성공리에 실시하였다. 인프라 정비, 건설에도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2. 파문 부른 국민협의회 (MPR) 의장의 시정 연설 비판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2019년 대선에서 빼라보워 지지를 선언한 국민신탁당 (PAN) 소속 ‘줄기풀리 하산’ MPR 의장은 “정부의 경제 성과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평범한 서민, 주부 들로 부터 현 경제에 있어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지니계수가 낮아진 이유도 저소득층 소득 증대 라기 보다 고소득층 소득이 낮아진 데 기인한 것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물가 상승에도 큰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이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야 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을 향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채무의 GDP 비율이 아직은 30% 이 내이지만, 2018년 기일 도래 상환 금액이 400조 루피아로 이는 촌락지원보조금의 7배 또는 보건 예산의 6배로 정부 채무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래 대통령 시정 연설은 국가 행사로 간주하여 MPR 의장이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관례를 무시한 발언이었는데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MPR 의장 발언은 부적절, 불손하고 구체적 통계 수치를 무시 한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3. 뿌라보워 대통령 후보의 조코위 정책 비판

지난 6월 중순 들어 뿌라보워 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과의 대화에서 “조코위 정권하에 정부 채무가 이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5월 시점 정부 채무 4,060조, 은행 제외 국영기업 채무 630조, 국영은행 포함 국유금융기관 채무 3,850조로 총 9,000조 루피아에 달한다. 국영기업은 동 채무의 담보인 자사 자산만 매각하면 모든게 해결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현 정권의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뿌라보워 그린드라당도 대학 집회에서 “현재 급격한 루피아화 하락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6월말 현재 달러당 14,400루피아 이상 하락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새로운 환율 박스권’ 형성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7월말 보수계 한 이슬람 단체는 “지난 5년에 걸친 루피아화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결국 우리 자산가치가 5년전 대비하여 반이 된 것이다. 특히 많은 국유기업들의 경영 상태는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악화 되었다” 라고 지적했다.

9월에는 “조코위 정권의 글로벌 시장경제 추구하고 외자 유치 중시 정책은 신경제주의 (Neoliberalism) 를 표방하는데 동 정책 기본 이론인 낙수효과 (Trickle-down) 즉 ‘부유층에 의해 부가 축적 되면 그부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빈민층으로 흘러 내린다’ 는 가설은 수하르토 정권 시절 이미 검증된 실패 사례이다. 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의 한 예로 양계 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기때문에 결국 시중 계란과 닭고기 값이 덩달아 올라 서민 생활이 날로 어려워 지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4. 유도요노 전 대통령 비판 가세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7월말 “중앙통계청이 2018년 3월 시점 빈곤율이 민주화 이후 최저치인 9.82%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빈곤 정의를 1인당 월지출액 41만루피아 이하를 기준한 통계이지만 세계은행 통계 기준인 1인당 일지출 미화 2달러/월 지출 86만루피아 이하를 적용할 경우 우리 빈곤율은 무려 40% 인데 이는 1억명 이상의 빈곤층이 존재하는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도요노는 2019년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던 장남의 정계 진출을 기대하고 있어 동 비판 이후 “나도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빈곤층 해소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통계청 발표 빈곤층 9.82%는 믿을만한 것이다. 나의 주장은 세계은행 기준하여 빈곤층 해소를 위해 끊임 없이 더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라고 보충 설명하며 비난 수위를 조절하였다.

5. 정부의 경제 성과를 호평하는 야당 간부도..

야당의 신랄한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부 야당 간부의 정부 정책을 호평하는 움직임도 있다. 국민신탁당 (PAN) 부총재는 6월 “지난 4년간 조코위 정권이 이룩한 인프라 건설, 정비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내가 지방 국회의원으로 공항, 고속도로, 항만 등 많은 인프라 현장을 지켜 보았는데 전 국민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입었다’ 라고 높게 평가 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의 장점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과 행동력이다. 예를 들면 누사땡가라 항만 건설시 법령 정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즉시 건설을 실행에 옮겨 2년만에 관련 법령 정비와 항만을 함께 완성해내는 그런 타입이다. 인프라 개

발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에서 지속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며 조코위 대통령 재선 지지 발언을 하였다.

6. 야당 비판에 대한 정부 반론

조코위 정권 경제 정책이 신경제주의 라는 비판에 대해 경제 담당 보좌관인 아흐맛 유스띠까는 지난 8월 “신경제주의란 시장메카니즘의 방임, 무간섭주의, 급격한 민주화와 자유화 지향, 외자에 대한 무차별 개방 등을 말하는것으로 조코위 정권의 정책과는 완전 다르다. 우리는 적절한 재정, 금융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 그리고 격차 시정을 위한 건전 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고 강조했다.

빈곤층 저하 논쟁에 대하여 농림부 홍보 과장은 통계 자료뿐 아니고 실제로 빈곤율이 저하 되었다는 증거로 농가 지출과 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 (NTP)’ 를 제시하며 농가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7. 루피아화 환율 하락에 대한 반론

2018년 중순부터 지속되어온 루피아화 하락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9월 초순 “루피아화 하락은 인도네시아만 아니고 개도국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미·중무역마찰, 미 정책금리 인상, 터어키, 아르헨티나 통화위기 등 주로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수출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스리물리야니 재무장관도 “2015년에도 급격한 루피아화 하락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 경상적자는 GDP 대비 4%

대로 2018년 2분기 3%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015년에는 양적 완화 실시와 금리 인상이 없었으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추세이고 양적 완화 정책도 완화 추세로 각국 통화가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주 건전한 경제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 5.27% 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도 경상 적자를 더욱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 생산 가능 품목 중심으로 900개 소비재 수입규제를 실시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자금 조달과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공적 채무 확대 우려에 대하여 “금년 6월 공적 채무는 4,227조로 전년동기 대비 14.06% 증가했다. 상세내역은 대외채무 779조, 국채 3,442조, 국내차입금 5.3조이다. 그러나 GDP대비 29.79%로 여전히 안전선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브라보워 총재의 공적 채무 9,000조 비난은 타당치 않다. 정부 채무와 국영기업 채무는 분리 평가해야만 했다” 라고 지적했다.

조코위 정권 장관들의 발언을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지지하고 있다. 2018년 7월 초 김용 총재는 “인도네시아 공적채무 대비 GDP비율은 타 개도국 대비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국가재정도 잘 관리 되고 있다.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는 극히 건전하다” 라고 조코위 정권의 손을 들어 주었다.

8. 양분된 경제 전문가 평가

민간 연구기관은 “현 정부는 확실히 신경제주의

를 표방하고 있다. 우선 그간 금지 되었던 분야와 업종이 점차 개방 되었고, 공적 채무도 국채의 40% 를 외국기업과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권이 농민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토지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지는 의문이다.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정비도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다” 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민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 정권은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빈곤층 40% 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16차 경제 패키지 실시를 통한 구조개혁으로 5% 경제 성장을 유지하였다. 만약 시장 메카니즘에만 맡겨 놓았다면 이러한 성과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린드라당이 주장한 “현재는 1998년 IMF 경제 위기보다 더 위중하다” 라는 비판에 대해 자마자 대학 교수는 “1998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당시 환율 2,300루피아가 급격히 6배인 15,000루피아 까지 폭락하였으나 현재는 13,000에서 14,600 으로 하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외환 보유고 1,180억 달러에 경제성장을 5% 그리고 인플레이는 약 3%대로 심각한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 등 일부 개도국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 설명했다.

빈부 격차 해소, 루피아화 환율 문제, 공적 채무 증가, 인프라 정비는 단기간내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이에 대한 야당 비판은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날로 강화 될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조코위 대통령이 남은 선거 기간까지 표밭인 일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들을 과연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평]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 어문학사
저자: 목타르 루비스(Mochtar Lubis, 1922~1974)
역자: 전태현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학과 교수)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와 지독한 피고름 냄새!”
인도네시아인 유엔중군기자 목타르 루비스는
6·25전쟁의 참상 중 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루비스가 6·25전쟁을 군더더기 없이 기록한 한국전 중군기(Catatan Perang Korea)이다. 언론인이자 작가인 루비스는 난리통에 한반도를 누비면서 한국인이 겪는 고통과 비참함을 기자수첩에 꼼꼼히 담아 한국전쟁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준다. 1951년 9월에 출판된 중군기를 번역한, 전태현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통번역학과 교수는 “열대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방인의 시각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고 느낀 점들을 탁월한 문학적 사유를 곁들여 담아낸 수기이다”라고 찬평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인의 처절한 절규와 고통에 공감하고 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랐다. 또 인도네시아인들이 당시 한반도 현실에 다소라도 관심을 기울여 봄으로써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적대 관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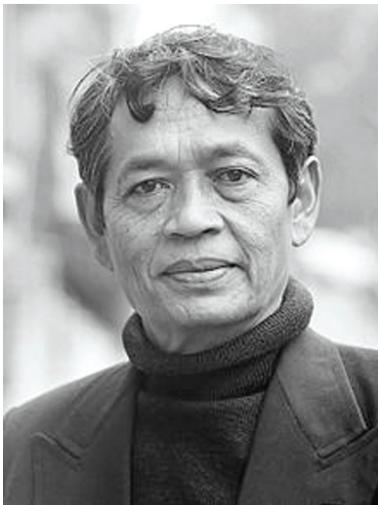
있는 강대국들의 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파멸의 길에 이르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수마트라 섬 빠당에서 출생한 루비스는 1945년 안타라통신사를 창설하였고, 유력 신문 ‘인도네시아 라야’를 창간하고 주필로 활약했다. 대표작으로 자카르타의 황혼(Senja di Jakarta)과 ‘끝없는 길(Jalan Tak Ada Ujung)’ 등 다수가 있다. 수카르노 정권 때 투옥되어 9년간 옥고를 치른 저자의 작품 ‘자카르타의 황혼’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가감없이 묘사해 언론과 문학 분야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전쟁 중 탐욕스러운 한국인 농부를 주인공으로 그린 ‘밤나무 골(Kebun Pohon Kastanya)’은 작가가 증오하는 부류의 인간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저자는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온통 미국과 한국군의 승전 소식이었다.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보도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정작 한국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 그리고 바람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 없었다”라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450만명이 처참하게 죽은 전쟁을 생생하게 담은 중군기에는 △여정의 시작: 자카르타·발릭파판·마닐라·오키나와·도쿄 △K-9 비행장과 부산 △밀양에서 만난 필리핀 부대 △빨치산 소녀와 부산행 열차 △북한군 철모와 중앙청 △의정부 탈환작전 △6·25중군기자들 △한반도의 재앙 △김일성 △이승만 등 10개 소재목과 발라이 푸스타카 출판사 판 초판 원서를 실었다.



루비스는 한반도의 재앙이라는 제8장에서 기관총 탄알이 북부를 관통한 여성을 목격한 후 이렇게 묘사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이 빠져나왔다. 피비린내와 고름투성이 상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간은 이와 같은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면 더 험악해지거나 더 숙연해지게 마련이다. 내 머리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이 모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무슨 소용? 인간성의 말살이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남과 북의 적대관계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도래한 외세끼리의 충돌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민족 스스로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38선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다.”

작가는 이어 한국의 ‘혼돈’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의 이승만이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썩은 것은 정부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승만이 파시스트라고 했다. 파시스트는 그가 아니라 경찰이라고 했다. 남한 사람이 잔인하다고 했다. 아니 잔인한 건 북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했다. 아니 이승만이야말로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은 한국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단지 대한민국을 방어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니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이유는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소련이 북한군의 기동을 지휘했다고 했다. 한국인들이 북한군의 진입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했다. 아니 북한군을 증오한다고 했다. 한국인은 미군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니 미군을 싫어한다고 했다. 남한은 정말 잔인하다고 했다. 남한은 민주국가라고 했다.”

[f(유가, 경제) or f(석유, 정세)]
유가? 어·결·정
 (어짜피 결론은 정략대로)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지난 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중간 선거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로 끝이났다.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재게했다. 비록 민주당에게 하원 다수당을 내줬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정책 기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중간선거 관련 기자회견 중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자화자찬’ 또한 잊지 않았는데, “최근 두달간 하락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시킨 본인 덕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생산량 감축에 따라 2016년 2월 배럴당 45.6 달러에서 올해 9월 73.1달러로 급등한 후 하락과 반등을 이어가며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이후 글로벌 유가 투기세력을 시장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와 사우디는 감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 미국은 원유재고량을 시장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 축적하며 원유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널뛰기를 계속하는 국제 유가와 그 주도권을 잡기위해 분투 중인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필자는 지난 10월, 세계의 눈이 쏠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사건이 오버랩 되었다. 카슈끄지는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후 실종됐고, 이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가 살해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피살사건에 사우디의 실권을 쥐고있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연루됐을 것이라 보고 비판에 나섰다. 당시 필자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다. 트럼프는 내내 사우디를 감싸다 일이 점점 악화되자 “역사상 최악의 은폐”라며 비판을 하긴 했으나 결국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은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큰손’ 사우디와 돈독했고, 현재도 미국의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있는 사우디를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 지난 2001년의 911 테러 또한 사우디 갑부 집안 출신인 ‘오사마 빈라덴’을 비롯한 사우디 국적의 테러범들 소행이었음에도 당시 부시 대통령은 사우디를 감싸고 돌다 결국엔 이라크를 희생양 삼아 공격하게 된다. 이 또한 부시 가문이 힘들 때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덕분에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이전 백악관 주인이었던 클린턴 또한 집권 당시 경제위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다 사우디국영항공사의 여객기 다량 구매에 힘입어 위기에서 탈출한 적이 있다. 이렇듯 백악관을 거쳐간 권력자들 중 누구도 사우디의 오일머니와 무관한 케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 미국 정가와 사우디 왕실의 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생 왕국을 만든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븐 사우드’가 아라비아반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신생 왕국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덤고 황량한 사막의 나라에 석유라는 “검은황금”이 흐른다는 것이 알려져 러시아와 영국 등이 탐욕을 손길을 뻗던 시기에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우디의 석유를 반드시 미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막대한 원조와

왕가의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이렇게 오일머니에 점령당한 워싱턴은 사우디 내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그러는 동안 사우디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다. 왕족의 사치, 부패와 함께 가중되는 민중의 고통, 그리고 이로인해 점점 극단주의에 물들어 가는 젊은이들... 때문에, 왕실은 이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하는 걸 막기 위해 극단주의 단체에 돈을 쥐어줬고,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활개 치는 단초 중 하나가 된다. 9·11 테러 또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세계 경제”는 물론 “세계 정세”까지 파급을 끼치는 재화이자 전략물자인 석유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얼마 전,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년째 급등 중인 국제유가가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가 10%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율은 0.3%포인트 높아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4%p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가 수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단가 인상 효과보다 크므로, 유가 상승은 교역조건 악화와 연결돼 내년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유가상승은 통화정책에는 중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확대하는 것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이지만, 경상수지 악화 및 내수 둔화 가능성이 이러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불모지인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에 언제나 촉각을 곤추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유 가격과 경제의 상관관계에는 복잡한 함수가 존재 하는 듯 하다. 필자 또한 인도네시아에 근무하게 된 이후 이러한 궁금증으로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 결론은 ‘잘모르겠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은 경상수지, 재정수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영향 분석이 기본이 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긴 하지만 생산하는 원유보다 수요가 더 많아 생산량의 배에 달하는 석유를 소비하는 원유 순수입국이며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저유가가 유리해 보이긴 하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저유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강한 반론을 제기한다. 인도네시아는 원유 순수출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 80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재정 수입이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등,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이 정부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니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불 상승할 때마다 세수가 약 35조 루피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인니경제의 상관관계를 고민해왔던 필자는 그 궁금함을 그만 두기로 했다. 4년전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며 유가보조금 대폭 감축을 추진했던 조코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발표는 필자로 하여금 그 오래된 궁금함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결국, (산유국이거나 아니면 힘 좀 쓴다는 강대국에서처럼) 인니에서도 석유는 경제(經濟)나 전략(戰略)물자가 아니라 결국엔 정략(政略)물자로 매듭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 자체가 무의미함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랄까?

땅그랑 반튼 한인회 최고의 한인의 밤 행사 성료



**지난 3년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만들기에 전심전력 기울여
3대 오세명 회장 각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한인회 만들어
4대 채만용 회장 더 성숙한 한인회를 만들 비전과 의욕 보여**

지난 16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2018년 한인의 밤 행사와 더불어 제3대 오세명 회장의 이임식과 제 4대 채만용 회장의 취임식이 땅그랑 소재 임페리얼 CC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를 비롯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승은호 명예 회장, KOCHAM 송창근 회장, 민주평통 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 송광중 회장, KOFA 신만기 회장,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 땅그랑반튼 한인회 이세호 초대회장, 하연수 명예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와 땅그랑 반튼 지역 한인 600여 명이 참석해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한인회 3대, 4대회장의 이취임식의 자리를 빛내주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9년전 우리 한인동포는 우리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초대 이세호 명예회장이 추대되어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2대 하연수회장, 3대 오세명회장의 봉사와 희생으로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한인단체에서도 부러워하는 화합과 소통이 멋지게 되고있는 한인회로 알려져 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의 주요활동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돕기 어린이날 큰잔치와 한인동포의 여가선용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한인 문화센터운영, 격년으로 실시되는 인근 불우한 환경의 아동을 위한 수돗만 행사등 크고 작은 행사로 항상 지역 한인동포와 교감을 같이 나누는 소통을



해 왔으며 한인회 내부에 비상대책위원을 설치하여 한인동포의 불이익과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앞장서 왔다.

또한 3대 오세명 한인회장은 PT.PRATAMA ABADI INDUSTRI 서영률 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기존 아파트내에 있던 한인회 사무실을 인근 피낭시아로 옮겨 보다 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항상 교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해 대선때 최초로 땅그랑 반튼 한인회 사무실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지역한인의 소중한 참정권을 더욱 더 많이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제 4대 회장으로 선출된 채만용 회장은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증권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한인회 3기의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했었다.

신임 채만용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회는 우리 한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체라고 한인회의 가치와 기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모두발언을 했으며 땅그랑에 많은 직능단체, 봉사단체, 문화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땅그랑반튼 한인회는 우리 동포 모두를 대표하고 동포와 함께 하는 우리네 이웃이고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인회는 세대간, 직업간, 지역간 더 많은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고국을 떠나 이방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됨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9년간 탄탄한 땅그랑 반튼 한인회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날 승은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많은 한인회를 초청받아 가 봤지만 땅그랑 한인회 같은 한인회는 없었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다.

제 4대 땅그랑 반튼한인회는 지역의 업종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봉제 기업인인 서광호 수석부회장을 위촉해 명실공히 탄탄한 4기 한인회의 출범에 청신호를 알렸다.

이번 행사에 더욱 더 돋보였던 부분은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전영록씨의 출연으로 이날 행사장에는 옛날의 향수와 더불어 감성과 감동의 콘서트 같은 분위기가 내내 이어졌다.

특히 행사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가 다 하나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되어 한층 더 성숙해진 우리 한인동포의 행사문화가 되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 새로운 회장단과 사무국요원들은 동포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인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더욱 더 하나됨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제 9회 땅그랑 반튼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는 4대 채만용 회장을 시작으로 큰 걸음으로 성장하는 한인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제공: 미디어코리아)



독도 합동홍보단 창단과 인도네시아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K-POP 댄스경연대회



한 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회장 배연자)는 11월 10일 롯데에비뉴 아이스 팔레스에서 '독도 합동홍보단 창단과 인도네시아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K-POP 댄스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원 수강생들의 사물놀이팀(지도 최재원)의 신명나는 연주와 UPI 한국어과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신기엽 한인회고문, 배도운 직스 재단이사장,

Dr. H.R Asep (UPI)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독도 합동홍보단 배웅식단장, 정체의 수석 부단장, 박정숙 부단장, Didin Samsudin, 한상인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배연자회장은 “태극기의 문양을 따온 독도 티셔츠를 다함께 입고 우리 모두가 독도 홍보위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시간이다. 특별히 위촉장을 받은 분들은 사명감으로 그 각 분야를 책임져야한다.



독도 합동홍보단 좌로부터 한상인,정체의, 배웅식단장, 배연자회장, Didin Samsudin, 박정숙



대상: Venomouz(K-Pop)

여기 모인 인도네시아대학생들이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종민 총영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홍보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외국에서 열심히 고국을 위한 활동하는 모습이 감동을 준다” 고 말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것에 새삼 긍지를 느낀다. 오늘 이 행사는 세계의 눈과 그 관심이 힘있는 강대국의 역사왜곡과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 한국의 지지세력이 되는 좋은 기회이다” 라고 말했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정당성을 선포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어진 2부 경연에서는 10명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참가자의 독도를 비롯한 한국문화에 대한 열띤 연설을 들었다. 8팀의 K-POP 댄스 경연에서도 오랜 시간 연습한 흔적이 있는 복장 소품 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경연 내내 응원의 열기가 가득한 대회장에는 젊음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최우수상: Invasion Girls (K-Pop)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왼쪽부터 아미르 샤리푸딘, 수카르노, 수디르만 장군

지난 호에 이어

마디운사태 - 공산당의 꿈

하지만 이 조약으로 인한 휴전으로 인도네시아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도 사실이었다. 한숨 돌린 여유를 찾자 공화국 정부는 레라프로그램(Program Re-Ra)이라는 정책을 진행한다. 원래 이것은 ‘정규군 재건 및 최적화 프로그램’ (Program Rekonstruksi dan Rasionalisasi)이란 뜻으로 1947년 12월 KNIP의 좌파 의원들의 청원에 근거하여 아미르 샤리푸딘이 시작한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1948년 1월 2일 대통령령 1호를 발표해 전군사령관 수디르만 장군과 군지도부를 해임했는데 KNIP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켜 이 대통령령은 결국 폐기된다. 그런 다음 나온 것이 레라프로그램이었다. 이는 건국 즉시 군대를 구성하지 않아 자생적으로 발생한 군사조직들이 난립해 조직체체가 중구난방이던 군에 효율적 체계를 장

착하려는 시도였다. 자이눌 바하루딘이 군개혁에 대한 법안을 포함한 청원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군을 국방부 산하에 두고 병력도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병력감축안에 대한 군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화국은 당시의 5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가지고서도 네덜란드의 진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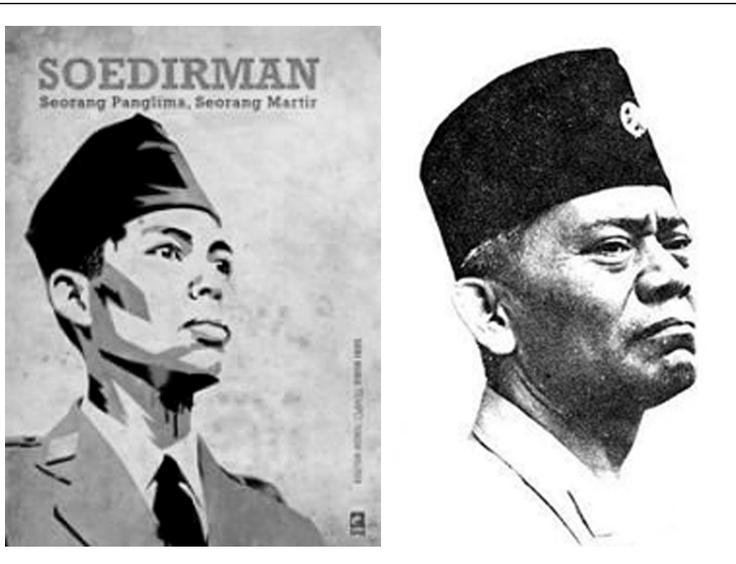
하지만 아미르는 이 레라프로그램이 부여해 준 기회를 이용해 군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려 했고 이를 위해 방해가 되는 주요 군간부, 즉 전군사령관 수디르만 장군과 전군참모장 우립 수모하르조 장군을 제거하려 했다. 당시 국방장관을 거쳐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두 번째 총리라는 중책을 맡은 국가적 중요 인물이었음에도 아미르 샤리푸딘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봉기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였고 어쩌면 그는 독립전쟁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승리보다도 공화국의 모든 영웅들을 제거하고서라도 동인도 제도에 공산주의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더욱 염원했는지도 모른다.

수카르노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식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이 ‘YES’ 라고 외치며 일본군에게 부역하면서 그곳에 길과 진리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군정 시절 내내 수판 샤리르와 함께 ‘NO’ 라고 부르짖으며 항일저항으로 일관했던 아미르 샤리푸딘은 수마트라 메단의 부유한 귀족 출신으로 네덜란드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유학에서 돌아온 후 바타비아에서 법학을 전공한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흔치 않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바타비아의 바짝인들이 다니던 가장 큰 개신교회엔 그가 설교했던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신앙의 깊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공산주의자라니 사뭇 아이러니하다.

아미르는 1937년 네덜란드 식민지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국제 파시즘을 주적으로 삼는 극좌정당 인도네시아 시민운동(그린도 - Gerindo)을 설립하면서 일단의 마르크스주의자 후배들을 이끌게 된다. 소련이 드미트로프 독트린으로 파시즘에 대한 국제적 공동전선구축을 촉구했을 때 네덜란드 식민정부과 맞서 싸우며 이 공동전선에 합류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린도는 우선 인도네시아인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입법부를 갖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했는데 이는 수카르노나 하타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즉각적 독립을 목표로 한 것에 비해 훨씬 온건한 것이었다. 일본의 위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던 시절, 파시즘의 위함을 일찌감치 경고했던 그는 1940년에 이르러 네덜란드 정보국으로부터 공산주의 지하조직에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만 독일의 동맹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동인도제도 물품의 대일수출 보이콧운동을 전개하자 1942년 3월 이를 눈여겨 본 네덜란드 정보국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된 그의 인맥을 통해 항일저항운동을 조직할 것을 부탁받았다. 그 시점은 네덜란드군이 일본에게 패전을 거듭하며 식민정부가 호주로 옮겨가던 무렵이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모든 저항을 강경하게 진압하자 인도네시아 지도자들 대부분은 중립적 방관자나 일본군의 능동적 협력자로 전향했지만 아미르는 수판 샤리르와 함께 저항세력을 조직해 적극적으로 일본군과 싸웠다. 그리하여 그는 1945년 당시 이미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정치가들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공산당과 교류했지만 1935년 재건된 이후 저급한 모습을 보이던 PKI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대체로 경멸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주의자 친구들과 전쟁 전 그린도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아 1945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수디르만 장군 우립

수모하르조 장군

사회당(PARSI)을 설립했고 같은 달, 그의 추종자들이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청년단(PESINDO)을 발족시켰다.

12월 16-17일에 있었던 양자회의에서는 아미르의 PARSI가 샤리르의 정치그룹인 PARAS를 합병하여 사회당(PS)을 발족하기에 이른다. 사회당은 족자와 동부자바에서 가장 강력한 친정부 정당이 되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쟁취를 위해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이 우선이라 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주의자들과 방향이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아미르와 사회당 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옳지 못한 구성요소들은 숙청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당론을 이끌었고 민족주의자들 상당수가 사실상 그들의 숙청대상이었다. 사회당의 서구화된 지도자들은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혁명열기보다 네덜란드의 좌익 세력들이 인도네시아 독립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 믿고 있었으므로 이 정당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사회당의 존재가 어딘가 석연치 않기만 했다. 일본패망 후 처음 구성된 첫 번째 인도네시아 정부에 복무한 17명의 각료들은 대부분 일본에 부역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 정부의 정보처장관으로 임명된 아미르만이 인도네시아의 해방을 감옥에서 맞이한 몇 안되는 항일투사였다. 아미르는 독립전쟁 초기 공화국의 첫 총리이자 수카르노의 라이벌이었던 수판 샤리르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새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공헌했다. 그는 그해 10월 30일 수라바야 전투 전야에 휴전협정을 위해 영국 군정의 다급한 요청으로 받아 수카르노, 하타와 함께 수라바야로 날아가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연합군으로부터도 말이 통하는 상대라고 신뢰받았던 증거이기도 했다.

1945년 10월 16일 샤리르와 아미르는 KNIP을 장악하고 11월 11일 의회주의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아미르는 샤리르 내각에서 국방장관의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그 국방장관이란 직위는 TKR과 그 새 사령관 수디르만 장군과 알력을 빚는 원인이 되었는데 군은 국방장관 후보로 족자의 술탄 하멩꾸부워노 9세를 - 사실 술탄 자신은 그 직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지만 -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아미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파시즘 프로그램의 핵심적 인물이었고 그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은 군이었으므로 군과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졌다. 아미르는 일본과 협력했던 PETA출신 장교들을 ‘반역자’, ‘파시스트’, ‘주구’라고 공격했던 것이다.

아미르는 정부에 충성하고 사회주의 이념 투철한 소련의 붉은 군대를 인도네시아 시민군대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19일 사회주의자들과 마슈미당 정치가들 일색인 ‘교육참모부’를 군에 설치하고 육군사령부와 협의도 없이 5월 말까지 55명의 ‘정치장교’들을 임명했다. 이 새로운 장교들이 혁명목적에 부합하도록 군을 교육할 참이었다. 그러나 수디르만 장군을 포함한 PETA 출신 고급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붙여진 ‘파시스트’라는 호칭에 격분해 이 제도를 격렬히 반대했다. 더욱이 사관학교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위기는 군의 자존감을 훼손했고 군이 국가적 투쟁에 있어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해야 한다는 군수뇌부의 방향과도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군수뇌부는 빨치산 이데올로기를 군에 도입하려는 아미르의 시도를 단호히 거절하여 좌절시켰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PETA 출신 장교들과의 적대관계로 인해 아미르는 다른 곳에서 군사적 지원을 찾으려 했다.



아미르 샤리푸딘

그는 몇몇 사단에서 네덜란드군 교육을 받은 호의적인 장교들을 규합했는데 그중 하나인 서부자바의 실리왕이 사단(제3 지역 군사령부)은 1946년 5월 당시 KNIL 출신 A.H. 나수티온 중령이 지휘하고 있었다. 새 내각을 지원하는 또 다른 무력의 원천은 내각의 반과시즘 노선을 지지하는 무장 청년단이었다. 그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당을 만들어 키워내는데에 샤리르보다도 더욱 분명한 재능을 보였던 아미르는 높은 친화력과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 청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네덜란드군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군 외에 특정노선에 충성하는 별도의 무력집단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으므로 군수뇌부들은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출현한 석연치 않은 무장청년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굳건하던 아미르와 샤리르의 관계도 1947년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아미르와 1946년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해묵은 의심과 반목은 반과시즘 구호가 힘을 잃으면서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한편 샤리르는 외교를 선점하여, 혁명열기가 뜨거운 중부자바를 물리적으로 떠나 자카르타에 머물며 네덜란드와의 협상을 진행했고 소련냄새를 물씬 풍기는 사회당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좌익이 지배하는 대형집회를 더욱 경원하자 1946년 6월에 이르러 반대파별들은 샤리르를 용도폐기하고 대신 아미르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에 아미르는 1947년 6월 26일 좌익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모스크바 편향의 두 지도자 압둘마짓(사회당), 위까나(PESINDO당)와 함께 샤리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들은 샤리르가 외교에 치중한다면 사실은 공화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고 호전적인 네덜란드에게 샤리르가 추구하는 강화시도는 부질없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미르는 총리직에 오르면서 광범위한 연정을 시도했지만 무슬림인 마슈미당은 공산주의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한 아미르에게 적의를 보여 초창기엔 당수 수끼만 박사를 비롯해 이전 샤리르 내각의 '종교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새 내각참여를 만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7월 아미르는 공화국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윈도아미세노 같은 영향력 큰 다른 마슈미 파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한가운데에 공산주의의 아우라를 본격적으로 풍기는 내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렌빌조약이 국가적 재앙이 되어 아미르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고 PNI와 마슈미당의 각료들은 1948년 1월 초 사퇴하기에 이른다. 1월 23일 지지기반을 잃은 아미르도 총리직을 사임했고 수카르노 대통령은 하타에게 비상내각 구성을 지시했다.

다음호에 계속



2018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올들어 여섯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촉발된 통화가치 급락에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6번째로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5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5.75%에서 6.0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앞서 선제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는 4.25%를 유지하다 지난 5월 0.25%포인트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6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올랐다.

루피아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심한 약세를 보여왔다.

특히 달러화 대비 가치는 연초보다 한때 10% 이상 떨어져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5%대의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된 덕분에 루피아화의 약세 흐름은 이달 초부터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반등세로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달러당 1만3천300 루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 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15일 현재 달러당 1만4천764 루피아로 공시됐다.

2019년 자카르타 최저 임금, 394만 루피아로 결정



내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은 주지사령 ‘2018년 제114호’ 로 결정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업자 카드’ 를 취득한 시민에게 공공 버스인 ‘트랜스 자카르타’ 요금의 무료화나 식량 보조금 지급, 자녀의 교육비를 보조하는 스마트 카드 배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특별주는 지난 1일 내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을 월 394만 973루피아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상률은 앞서 하니프 노동장관이 설정한 8.03%에 부합했다.

한편, 인니 노동부가 내년 주최저임금 인상폭을 8.03%로 설정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자카르타특별주 지부 살만 부지부장은 “자카르타의 UMP 상승률은 4.5~5%로 제한돼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9년 자카르타 최저 임금, 394만 루피아로 결정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외자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완화를 통한 외국인 100% 출자 허용 정책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에 해외 직접 투자(FDI)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 통신과 에너지·광물 자원, 건강 분야 등 8분야의 25개 업종에 대한 외자 기업의 100% 출자를 허용했다.

한편, 카딘의 로산 회장은 “경상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FDI 유입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라며 “단지 투자 정책은 국내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준다. 경제계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

KADIN 회장은 이어 “KADIN 소속 124개 업계 단체와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외자의 100% 출자 실시 시기는 당분간 연기해 달라” 라고 강조했다.

인니 섬유 산업, 에티오피아의 급성장에 '경계'



한국 정부가 신남방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의 통상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이들 3개 국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앵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렐 레이킹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양국 교역·투자 관계 발전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을 아우르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기존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다자 무역협상을 하면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자 협상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양국 관심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국이 여럿인 다자 협상은 국가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 합의가 어렵고 협상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양자 협상에서는 서로 관심 있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특히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인 2억5천500만 인구나 아세안 최대 규모의 영토가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2017년 179억7천만달러로 수출 84억달러에 수입 95억7천만달러다.

말레이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2017년 167억6천만달러로 80억4천만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87억2천만달러를 수입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네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며, 카자나내셔널과 PNB 등 영향력 있는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RCEP 협상의 내년 타결을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비즈니스 포럼’을 조속히 발족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도 양국 통상장관이 주재하는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한국의 자산운용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유망기업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수레쉬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도 만나 지난 7월 양국 정상에 논의한 한국기업 전용 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 협력사업 이행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미 인도와 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나 다른 FTA보다 자유화 수준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2016년 CEPA 개선협상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RCEP과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인도 시장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반둥-싱가포르 노선 재개

인도네시아 국영 Garuda 인도네시아(PT Garuda Indonesia)는 다음달 2일부터 서부자바주 반둥-싱가포르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Garuda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유명 관광지이자 각종 대학이 모여있는 반둥의 방문 여객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월, 수, 금, 일요일 주 4회 운항하며, 기체는 보잉 737-800NG을 사용한다.

싱가포르행 GA844편은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노가라 공항에서 오후 0시 50분에 출발해 3시 55분(현지 시간 기준)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다.

반둥행 GA845편은 싱가포르에서 오전 11시에 출발, 반둥에는 12시에 도착한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Weekly

제 6회 재인니 한인청년회 & 옥타차세대 친선 골프대회 및 2018년 송년의밤 행사



제 6회 재인니 한인청년회 & 옥타차세대 친선 골프대회 및 2018년 송년의밤 행사를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에 땅그랑 모던 골프장(Modern Golf & Country Club) 개최했다. 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과 옥타차세대 원영태 대표는 “청년들께서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많은 네트워킹을 하고, 2018년 한해 고생 많으셨으니깐.. 즐겁게 즐기시다 가세요” 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청년들에게 아낌 없는 좋은 말씀과 인사를 해주시러 양영연한인회장, 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승은호 한인회명예회장, 김우재 월드옥타명예회장, 송창근 상공회의소 회장, 신기엽 한인회명예고문, 김병삼 코트라관장, 송광중 민주평통회장, 전민식 한인회수석부회장, 최병우 재인니대한체육회명예회장, 이강현 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 이세호 땅그랑명예회장, 최정훈 우리은행장, 박종진 하나은행부행장, 유영

택 신한은행이사의 많은 초청인사분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민청의 Bapak Zaeroji (Direktur Pengawasan dan Penindakan Keimigrasian), Bapak Petrus Teguh (Kepala Kantor Imigrasi Bekasi), Bapak Hasrullah (Kepala Kantor Imigrasi Palembang), Bapak Yuliantoni (Kepala Seksi Imigrasi Ilegal Ditjenim), Bapak Pascall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CEO) 가 참석을 했고, 이민청장은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와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욱 우호적이고 우애를 쌓아가길 바라며, 단단하고 하나가되는 한국사회가 되길 기원드리며, 마지막으로 한국사람들끼리 비난하고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라는 짧은 축사를 남겼다.

옥타 차세대 대표인 원영태는 2019-2020년 차세대 대표로 선출된 신지훈과 대표직 이취임식을 함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골프대회는 140명 Shotgun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녁 송년의 밤행사는 약 180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뤘다.

<골프 시상>

메달리스트 - 박세호 (70타), A조 우승-김종현, B조 우승-서용교, A조 1st-김영학, B조 1st-박경원, Longest Driver-Bapak Hasrullah (262m), Nearest-정제의 (25cm).

(제공: 한인청년회)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워크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 자문위원들은 11월23일-25일(2박3일)까지 주인도네시아 김창범대사님을 모시고 바람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에 따른 해외자문의 역할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해외 자문위원의 역할에 관해서 기존의 평화통일의 기초에 흔들림없이 민간 공공 외교에 힘쓰며, 자문위원들간에 좀더 긴밀한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자문위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아주 작은 곳에서의 실천과 행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가끔 이런 협의회,지회,분교위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서로가 의견을 말하고, 청취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렇게 만나야 대화도 되고 화합이 된다는 생각을 모든 자문위원들의 공감하는 워크숍이었다.

다국가의 협의회로써 서로 멀리 있어 함께 하지 못했던 만남을 이 기회를 통해 만나서 문화활동, 봉사활동 및 2019년 사업계획도 함께 토의하며 여러 활동을 함께 함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서로와 서로의 관심속에서 만남의 설렘보다 헤어지는 서운함이 큰 아름다운 추억으로 녹아내리는 바람의 2박3일이었다.

(제공: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신선로 Sinseonro

글: 양소연 (전 KBS World Radio 방송작가)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마지막 Aneka Masakan Korea의 양소연입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자리를 꼭 챙기게 되는데요. 함께하면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식사, 오늘 Aneka Masakan Korea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 소개해 드릴 음식은 보기만 해도 대접 받는 듯한 요리. 바로 신선로 입니다. 신선로는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궁중요리로서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생선, 만두 등에 맑은 육수를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음식입니다. 건지를 집어 먹는 재미와 끓이면서 우려난 국물을 맛보는 즐거움까지 선물할 음식이 바로 신선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요리법으로 가족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식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Bahan-bahan

A. Daging sapi untuk rending atau sirloin 150g
Kecap asin 1 setengah sendok teh
Minyak wijen 1 sendok teh
Biji wijen setengah sendok teh
Gula pasir sedikit

B. Hati sapi 100g
Daging ikan fillet 100g
Tepung terigu 1 sendok makan
Telur ayam 1 butir
Garam setengah sendok teh
Merica setengah sendok teh

C. Telur ayam 2 butir

Wortel 60g
Jamur Pyogo 3 buah
Jamur kuping 3 buah
Peterseli 50g
Tepung terigu 1 sendok makan
Biji pohon jingko 30 butir
Kacang pinus secukupnya

D. Daging sapi yang diris panjang seperti

korek api 50g
Bawang bombay yang diris panjang-panjang 50g
Kecap asin 1 setengah sendok teh
Minyak wijen 1 sendok teh

Cara Memasak

1. Bersihkanlah sisa darah daging sapi dengan tisu dapur. Kemudian di iris tipis dan lebar. Kemudian campurkan semua bahan A ke dalam mangkok bersamanya. Aduk hingga rata. 기름기 없는 소고기를 준비해 키친타월로 핏물을 잘 닦아 내고 얇고 넓게 저며 썬 후 양념 A에 잘 섞어 둔다.
2. Panaskan penggorengan dengan minyak goreng secukupnya. 팬을 뜨겁게 달군 후 기름을 충분히 두른다.
3. Setelah penggorengannya sudah panas, matangkan daging yang sudah dibumbui. 팬이 달궈지면 양념이 밴 고기를 올려 놓고 잘 익혀준다
4. Jika dagingnya sudah matang, diiris kotak-kotak dengan ukuran sekitar 4 X 2cm atau sesuaikan panjangnya dengan tempat Sinseonno. 고기가 다 익으면 꺼내 식힌 후 가로 세로 4 X 2 cm 크기로 자르거나 신선로 그릇에 맞추어 자른다.
5. Untuk mendapatkan rasa yang lebih sedap, hati sapi direndam dalam air dingin sebelum dimasak. 불순물과 잡 맛을 줄이기 위해 소 간은 미리 찬 물에 담궈 둔다
6. Hati sapi dan daging ikan putih diiris lebar-lebar dan sesuaikan ukuran tempat Sinseonno. kemudian tambahkan bumbu-bumbu B. 소 간과 생선 살은 1cm 정도 두께로 자르고 소고기와 같은 크기로 준비한 후 양념 B로 간을 해 준다
7. Hati sapi diolesi dengan tepung terigu kemudian telur ayam yang dikocok. 간이 밴 소 간은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힌다.
8. Matangkanlah diatas penggorengan dengan sedikit minyak goreng. 그리고 기름을 약간 두른 팬에 고루 익혀 준다.
9. Campurkan semua bahan-bahan D bersama 1 buah jamur Pyogo diiris panjang-panjang. 준비해 둔 재료 D 와 길게 썬 표고버섯을 함께 잘 섞는다.
10. Wortel diiris dengan tebal 1 mm dan panjangnya sesuai ukuran tempat Sinseonno. 당근은 1mm 두께로 채 썰 거나 신선로그릇에 길이를 맞춰 준비한다.
11. Batang peterseli disusun berjejer dengan menggunakan tusukan. 미나리는 줄기 부분을 가지런히 다듬어 놓은 후 이쑤시개 등으로 고정시킨다.
12. Kemudian taburkan sedikit tepung terigu di atas dan belakang peterseli. Lalu diolesi dengan telur ayam yang telah dikocok, setelah itu matangkan dengan sedikit minyak goreng. 고정시킨 미나리에 앞 뒤로 밀가루를 조금 뿌려준 후 달걀물을 입히고 약한 불에 달걀이 익을 정도로만 익혀 준다.

13. Pisahkan telur bagian putih dari bagian yang kuning.

Tambahkan minyak goreng sedikit pada penggorengan yang telah dipanaskan, lalu masukkan telur bagian yang putih dan kuning secara terpisah.

황백 지단을 만든다.

14. Iris peterseli dan jamur pyogo bersama kuning dan putih telur yang sudah matang itu dengan ukuran yang sama dengan wortel.

익힌 미나리, 표고버섯, 황백지단을 당근과 같은 크기로 잘라 준다.

15. Dijejerkan semua bahannya ke dalam tempat Sinseonno menurut warna.

준비한 재료를 색 맞추어 돌려 담는다.

16. Tambahkan biji jingko dan kacang pinus sebagai hiasan.

은행과 잣을 곱명으로 올린다.

17. Tuangkan kaldu sapi yang panas. Setelah kuahnya mendidih Sinseonno siap dimakan.

Tambakanlah garam dan merica jika perlu.

마지막으로 육수를 넣고 기호에 따라 소금과 후추를 첨가하고 마무리 한다.

Untuk membuat Sinseonro, kita memerlukan waktu yang cukup lama dan teknik memasaknya agak sedikit rumit. Ya.. cara memasak menu hari ini cukup sukar!. Tetapi rasanya luar biasa!! Anda pasti ingin mencobanya bukan? Karena semua bahan-bahannya telah matang, Anda bisa langsung makan setelah kuahnya mendidih. Untuk menikmati Sinseonro yang lebih enak, siapkan kuah yang panas dan tidak tawar. Anda bias menambahkan bahan-bahan yang Anda sukai seperti, lobak, abalone, berbagai jenis jamur dan lain-lain.

Sebentar lagi tahu baru 2019 segera datang. Selamat Tahun Baru para pembaca setia Korean News. Semoga Anda sekeluarga bahagian dan sehat selalu. Korean News terus berusaha untuk menjadi teman baik Anda hingga membuat Anda lebih bahagia. Saya Yong So-yeon terima kasih atas kebersamaan Anda selama ini. Sekian Aneka Masakan Korea edisi bulan ini. Selamat mencoba. Terima kasih.

Kosakata Edisi bulan ini

1. Tepung terigu/gandum : 밀가루

☞ Kue ini dibuat dengan tepung terigu organik.

이 과자는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어

2. Secukupnya : 필요한 만큼

☞ Tolong ambil secukupnya.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3. Mangkok nasi : 밥 그릇

☞ mangkok besar 대접/국그릇,

4. Selamat Tahun Baru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 국제 콘텐츠 공모전 'Talk Talk Korea'

수상작 인도네시아 순회전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문화홍보원과 외교부가 주최한 2018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톡톡 코리아' 수상작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자카르타와 반둥 2개 지역에서 전시한다.

2018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톡톡 코리아'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체험하는 한국(Find Korea in Your Country)'이라는 주제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국제 콘텐츠 공모전(Talk Talk KOREA 2018)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현지에서 체험하는 한국(Find Korea in Your Country)'을 주제로 △한식, △미용·스타일, △음악·드라마, △기타(한복·한글·태권도) 및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특별주제로 총 5개 분야에서 공모에 참여한 1만 6천여 점에서 12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중 인도네시아 수상자는 총 11명으로 특히 한식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조아니타 무티아라(Joanita Mutiara)양의 작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주인공이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으며 위안을 받는다는 내용의 6페이지짜리 웹툰이 차지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이번 수상작 전시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2018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자카르타컨벤션센터 B홀 전시장, 11.22.~24), △한국유학 박람회(자카르타컨벤션센터 Merak Room, 11.24.~25),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다목적홀(12.4~15), △반둥(12월 중) 등 총 4곳에서 전시된다.

(제공: 한국문화원)

TALK TALK KOREA 2018
FIND KOREA IN YOUR COUNTRY
2018 WINNERS EXHIBITION

K-FOOD | K-BEAUTY & STYLE | ETC | K-MUSIC & DRAMA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2 - 24 Nov. 2018
2018 Jakarta International Products Fair (JIPremium)
Jakarta Convention Center (JCC), Hall B

24 - 25 Nov. 2018
2018 Study in Korea Fair in Indonesia
Jakarta Convention Center (JCC), Merak Room

4 - 15 Dec. 2018
2018 Talk Talk Korea Winners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er Indonesia (KCC)

7 - 13 Dec. 2018
2018 Talk Talk Korea Winners Exhibition
Bandung

KCC.ID
#TalkTalkKorea201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해이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The Royal Kitchen (메가 꾸닝안)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안녕하세요. 어느덧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군요...

2018년 대미를 장식할 식당으로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숨겨진 맛집, The Royal Kitchen 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식당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지 감이 잘 안 오 시죠? 이 곳은 한국인에게 커리보단 카레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정통 인도 음식을 파는 곳 입니다. 인도 음식하면 '커리(Curry)' 와 '난(Naan)' 이 빠질 수 없죠. 이 외에도 인 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탄두리 치킨(Tandoori Chicken)이 있습니다. 탄두리 치킨은 탄 두르(Tandoor)라고 불리는 화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닭을 요구르트에 절인 후, 계피, 후 추, 다진 마늘, 심황, 정향, 생강즙 등이 첨가된 화덕구이 닭 요리입니다. 탄두리 치킨은 인 도에서 축제나 잔칫날 등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도 Tandoori Murgh(half, 89,500루피아++)이라는 메뉴명으로 탄두리 치킨 이 파는데요. 한 마리 또는 반 마리 중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반 마리를 주문하면 치킨 4조각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놀랐습니다... 양은 다소(?) 적지만 독특한 향신료 맛으로 인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맛있었습니다.

인도 대표음식인 커리, Karahi Jhinga(189,500루피아++)이라는 메뉴를 주문하였는데요. 우 선 이 곳에 커리 종류만 무려 20개 정도가 달해 어떤 커리를 주문을 해야할 지 막막했습니다. 탄두리 치킨을 이미 주문한 지라 해산물 커리(새우 커리)를 주문하였는데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먹는 걸죽한 카레라이스와 전혀 다른 꾸덕꾸덕한 커리를 Garlic Naan(39,500루피아++)과 Cheese Naan(59,500루피아 ++)에 찍어 먹으니 금상첨화였습니다. Cheese Naan는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어 치즈 음 식을 좋아하시는 분께 정말 강추입니다!! 시간이 지나 Naan이 차가워지면 종업원에게 다시 데워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Naan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이거든요~

혹여 커리와 Naan만 계속 먹다보면 자칫 심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인도식 감자 샐러드인 Aloo papari chaat (49,500루피아++)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신선한 통미니감자가 독특한 소스와 어우러진 음식으로, 탄두리 치킨과 커리&Naan을 먹은 후, 입안을 다시 깔끔하게 해주는 정말 상큼한 맛입니다.

메인 메뉴 말고도 요거트 음료인 Maggo Lassi(45,500루피아++)도 꽤 유명한데요. 식당마다 직접 요거트를 제조하여 맛이 각기 다른데, 이 곳 Lassi는 달지 않고 약간 시큼한 것이 건강한 요거트 맛이었습니다. 망고 맛 외에도 오리지널, 딸기, 메론 등 다양한 요거트 음료를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이 식당은 인도인이 직접 운영하여 정통적인 인도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심 특선 메뉴(월~일 11:00~15:00 가능, 월~목 150,000루피아++, 금~일 160,000루피아++)로 뷔페가 매일 운영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커리, Naan, 케밥, 인도 전통 디저트 등 총 15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본점 외에도 발리 누사두아 지역에 분점이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분위기는 자카르타 본점이 훨씬 좋아요~ 2018년 마지막을 자카르타의 숨겨진 맛집 The Royal Kitchen과 함께 인도 음식 어떠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The Royal Kitchen

1. 음식 종류 : 인도 음식
 2.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3. 영업시간 : 월-일 11:30 ~ 23:00
 4. 전화번호 : 021-2975-9253
 5. 위치 : Bellagio Boutique Mall,
Jl.Lingkar Mega Kuningan, Jakarta
- ※ Zomato 참고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gaeunsuh@hanmail.net

주 황빛 저녁 노을이 각양각색의 구름을 싣고 고고한 자태로 서쪽하늘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이제 한 장의 달력으로 남아 펄럭이고 있는 2018년 한해도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는 노을 끝에 서있는 느낌이다. 차창밖에 밀려든 노을은 짙은 빛으로 붉게 물들며 마지막 춤사위를 펼친다. 자신의 몸을 빨갱게 불태우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저녁노을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삶은 그것 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때로는 생존하는 모든 것을 시간의 끝으로 물고 가는 야속한 세월 탓에 매년 이맘때면 행여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었는지 자책과 아쉬움으로 마음한구석이 시려 온다. 한해의 365일을 제대로 가치 있게 보냈다고 자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새해를 설계해야만 할 것 같은 자성이 앞선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날들로 이어지는 것이야 말로 참다운 인생으로 다가가는 겸허한 발걸음일 것이다.

바쁘게 떠밀려가는 12월에 동승해 잠시 속도를 멈추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본다. 인도네시아 한인뉴스 <행복에세이>코너에 행복과 관련된 글을 써야 할 때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사를 밝은 마음으로 읽어내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한해를 보내면서 세상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환경일 수도 있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것 들로부터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는 숙성된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늘 새롭게 깨어 있는 작가로 거듭나서 2019년 새해에는 좀 더 가깝게 행복의 정서에 다가가는 이야기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

작가로 살아가면서 언제 들어도 기쁜 말은 글을 잘 읽고 있다는 독자를 만나게 될 때다. 우리의 삶은 늘 만남으로 이어지는 사회이고 칭찬의 말에 고갈된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같아서 그 착각 속에 오래 머물고 싶을 때가 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어쩌면 사명감 있는 작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라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야 한 번 뿐인 인생에서 행복한 착각도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올 한 해도 정말 너무도 바쁘게 보냈던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은 단체와 문학활동으로 너무 바쁜 탓에 가족 또는 가까운 이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만의 사계절인 아름답고 매혹적인 자연과 만나는 일도 자주 놓치고 사는 일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는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에 자주 의존하고 마음을 쉬어 가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다.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흔탁한 정신을 세척하는 청량제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으로 치닫게 되는 마음도 자연 앞에서 귀를 열면 모두 내려놓고 털어버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 받는 느낌이다.

이 늦은 가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이다.

홍윤숙의 시 <이 가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 부분이다. 신(神)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운 고독이라는 이름과 잘 어우러져 보인다. 한해를 보내면서 읽게 되는 이 시는 어쩐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짧고 단순하게 느껴지는 시어지만, 자기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오기 때문일까? 의자에 앉기까지의 슬한 어려움과

노력을 잊고 방만(放漫)하지는 않았는지, 앉아있을 자격이 있고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쉽게만 여겨지던 그냥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이 진정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켜거나 조간신문을 펼치는 일이 덜컥 겁이 난다. 세상은 온통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양심의 부재로 벌어지는 황당한 소식들 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 너무도 두렵고 가슴이 텅 비어 온다. 국내외는 물론 세계 속의 경제난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삶의 풍경들이 그렇게 생활의 한 부분인 양 무심히 흘러가고 있다. 또한 이제는 어떤 나라도 자연재해에서 안전지대가 없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신이 인간을 시험할 때는 인간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인도네시아 팔루(Palu)의 쓰나미처럼 인간이 겪는 최악의 고통가운데도 서로 뭉쳐지고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한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모든 사욕과 이기심을 떠나보낼 때 신은 어쩌면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어느 것이라도 좋다. 그 모두라도 좋다. 신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다만 그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되도록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간절히 소망하던 대 더 이상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평온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하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 자연 재해 앞에 참담하게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울했던 모든 일들이 떠나는 2018년에 편승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안개가 걷히고 수평선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새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이곳 인도네시아 한인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한국외대 글로벌 CEO 과정, 연말행사



한국외대 글로벌CEO과정 원우회는 2018년 11월26일(월) 자카르타의 한 한식당에서 2018년 연말모임을 갖고, 한 해를 회고하는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1기를 배출한 2014년부터 꾸준히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강연과 워크숍을 개최하며 배움을 이어온 원우회는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등으로 활동이 부진했음을 아쉬워하며 2019년엔 두차례의 세미나는 물론, 글로벌 CEO 4기 모집도 진행 하기로 하였다.

2018 코윈 총회 개최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담당관 이회경)는 2018년 11월22일(목) 블록엠 소재의 인도네시아 식당 Meradelima에서 2018년 총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결과와 향후 남겨진 과제 및 차기 담당관 선임에 관한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신현미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부인이 참석하여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가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격려하였고, 국제부인회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중 일부를 후원하였다.

또한 여성과 청년의 멘토로 맹활약중인 공학박사 이소영 경북대 교수를 초청하여 전세계인의

화두인 4차산업 시대의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갖기도 했다. 이소영 교수는 인간은 5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봇 등 4차산업의 구성요소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일거리와 새로운 기회를 함께 비교하여 4차산업을 쉽게 풀어주었다. 아울러 4차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움의 시간을 마련한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코윈 세미나, 4차산업혁명과 미래전략

코윈 인도네시아 지부(담당관 이희경)는 2018년 11월24일(토) 코린도 그룹 시청각실에서 한인청년들을 위한 “4차산업혁명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윈 인도네시아는 매년 한인 청년 혹은 청소년의 리더십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올 해는 특별히 한국으로부터 여성과 청년의 멘토로 맹활약중인 공학박사이소영 경북대 교수를 초청하고, 오영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4차산업부문 자문, 인터넷 보완솔루션 업체인 지란 인도네시아 테크의 안재국 대표가 마련한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이소영 교수는 ‘우리는 왜 4차산업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미래를 고민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초강연을 통하여 인간이 가진 직업은 생활이 달라지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공유와 창조, 그리고 협업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막연한 걱정보다 적극적인 기회를 찾을 것을 강조하였다. 오영서 자문은 ‘인도네시아와 4차산업’을 주제로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정치 행정적으로 개념정리와 부처간 협력이 부족하고, 시설면으로

통신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4차산업에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 중국의 진출이 눈에 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하였다. 안재국 대표는 ‘기회의 인도네시아’라는 주제로 2030년에 IT전문가 및 준전문가 인구가 900만 명 가까이 부족해질 것이며, 기술 격차 해소는 아웃소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4차산업이 가져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강연 진행자와 일부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지는 열기에 이희경 코윈 인도네시아의 담당관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한인 청년들의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음에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피력하였고, 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중인 한 참가자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주제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 의미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좋은 세미나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으니 꼭 연락 부탁한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작은 손 따뜻한 마음’

문예총, Palu재난구호성금전달



재인니 문화예술 총연합회(이하 한인문예총)은 제5차 문예총 종합예술제를 준비하던 중 Palu지역의 재난소식을 접하고 재난 지역의 아픈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데 동참하자는 500여명의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종합예술제 기간동안(2018년 10월 8일~14일 꼬망 리뽀몰) Palu 재난 구호성금 모금 활동을 벌여 문예총 소속 17개단체와 행사장을 방문한 관객들과 함께 뜻깊은 성금 모금을 하였다. 행사기간 중 출연 및 행사진행팀에게 지불하려던 식비를 절감하였고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과 관객들에게도 적극 동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작은 손 따뜻한 마음”으로 모금을 하였다.

모금된 성금은 지난 11월 2일 박형동 회장님 채영애 감사, 김혜정 공연수석 부회장, 김경애 전시수석 부회장, 정방울 한인 무용단장 등 임원진이 한인회를 방문하여 행사 결과 보고 및 한인회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슬라웨시 Palu 지진과 재난 피해자를 돕기위해 모은 성금 1천만 루피아와 한지공예(회장 김경애)의 공예판매 수익금 전액 1천만 루피아를 한인회(회장 양영연)에 전달하였다. 물론 지난 롬복 지진때에는 문예총 단체인 한바패(회장 박형동)에서 5백만루피아를 전달하여 한인 문예총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도 전달하였다.

(제공: 문예총)



비교해
봅시다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대박 한국어학원장 박경재
gurubahasakorea@gmail.com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이번 회에서는 인도네시아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me-” 접사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어휘는 어근(기본 단어)과 접사가 덧붙여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근 beli에 접사 “me-”가 붙어 membeli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왜 이렇게 접사를 붙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beli만 쓰지 membeli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이나 뉴스, 공문서와 같은 공식적인 언어를 접할 때는 접사를 붙인 형태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공식적 언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 언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한국어도 “밥 먹었어요?/식사하셨습니까?”와 같이 공식적 언어와 비공식적 언어가 구분됩니다. 한국어가 조금 다른 점은 공식적인 언어와 비공식적인 언어의 구분 이외에도 높임말과 낮춤말(반말)의 구분 또한 있습니다. 이 2가지 구분은 카테고리가 다른데 다음의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학교에 갑니다.
2. 학교에 가요.
3. 학교에 가.

위 세 예문에서 1번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공식적 표현입니다. 2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비공식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은 둘 다 높임말에 속합니다. 3번의 경우 비공식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낮춤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어의 경우는 접사와 어휘에 따라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ㄱ. Besok saya akan berlibur. (저 내일 쉴 겁니다.)

ㄴ. Besok gue libur. (나 내일 쉴 거예요 / 나 내일 쉴 거야.)

ㄱ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akan과 접사 ber-가 쓰여 공식적인 말하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ㄴ에서는 접사의 쓰임도 없거니와 saya를 속어인 gue로 바꿔 사용함으로써 비공식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높임말과 낮춤말의 개념이 명확히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 반말이 있다, 없다가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구에게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태도나 억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말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 “me-” 접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식적인 표현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me-” 접사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사화의 기능을 합니다. 품사가 명사, 형용사, 동사인 어근과 “me-” 접사가 결합하는데 명사 어근과 결합할 경우 기본 명사의 의미를 동작으로 바꾸어 줍니다. ‘담배’의 뜻인 rokok은 merokok이 되어 ‘담배를 피우다’로 동작성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근이 형용사일 경우에는 기본 형용사의 의미에서 상황이나 상태가 바뀌거나 변하게 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얗다’라는 putih는 memutih가 되면서 ‘하얗게 되다, 하얘지다’, 즉 이전의 상태가 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 어근이 동사일 경우 기본 의미에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나 대부분의 단어가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몇 단어들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읽다’의 baca는 membaca가 되면서 뒤에 목적어(책, 잡지, 신문 등)가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me-” 접사는 어근에 붙어 기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예시에서 memutih와 같이 “me-” 접사가 붙어서 첫 글자가 생략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me- : 어근의 첫 글자가 ‘l, r, m, n, ny, w, y, ng’ 일 경우, 생략되는 첫 글자는 없음.
lawan > melawan, merah > merah, nilai > menilai
2. mem- : 어근의 첫 글자가 ‘b, f, v, p’ 일 경우, p는 생략됨.
buka > membuka, foto > memfoto, pukul > memukul
3. men- : 어근의 첫 글자가 ‘c, d, j, sy, z, t’ 일 경우, t는 생략됨.
dapat > mendapat, jual > menjual, tulis > menulis

4. meng- : 어근의 첫 글자가 ‘모음 a, e, i, o, u’ 또는 ‘g, h, kh, k’ 일 경우, k는 생략됨.
isi > mengisi, erti > mengerti, kontrol > mengontrol

5. meny- : 어근의 첫 글자가 ‘s’ 일 경우, s는 생략됨.
sewa > menyewa, simpan > menyimpan

6. menge- : 어근이 단음절, 하나의 소리일 경우.
pel > mengepel, bom > mengebom

“me-” 접사는 위와 같이 어근의 첫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더 쉽게 발음하기 위한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지금의 규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글자 ‘p, t, k, s’ 는 “me-” 접사와 결합하면서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래어의 경우, ‘produksi > memproduksi’ 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me-” 접사는 어근과 결합해서 공식적인 표현을 만들거나 명사를 동사화하고 형용사의 상태 변화, 동사에 목적어를 갖게 하면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근의 첫 글자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me-” 접사의 기능을 잘 숙지 해놓으셨다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부분 중에 “me-” 동사인데 목적어를 가지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목적어를 포함하거나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형용사 어근이 “me-” 접사와 결합했을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참고하시어 일상생활에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kopi > mengopi (커피를 마시다) | tangis > menangis (울다) |
| rokok > merokok (담배를 피우다) | nyanyi > menyanyi (노래하다) |
| panas > memanass (더워지다) | tari > menari (춤추다) |
| dingin > mendingin (추워지다) | tinggal > meninggalkan (돌아가시다) |
| obrol > mengobrol (수다를 떨다) | |

‘tinggal (살다) > meninggalkan(돌아가시다)’ 과 같이 “me-” 접사와 결합했을 때 어근의 기본 뜻이 매우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다음 회에서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살게 된 인도네시아

김 영은(한인니문화연구원 국제교류팀)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인도네시아는 발령 날 때 울고, 떠날 때 운다’ 는 이야기가 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후진적인 나라에서 생활하여야 할 걱정에 울었다가 근무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사는 동안에 누렸던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두고 떠나야 함에 운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영영 운 생각을 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인도네시아가 준 마음의 여유로움 덕에 나는 사는 동안 마음씨 좋은 넉넉한 좋은 친구들과 꽤나 깊은 정을 나누었던 터였다.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은 8년전으로 남편의 해외파견이 결정되었을 때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에서의 생활 경험을 꿈꿔왔던 나로서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로의 파견은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게다가 출국에 앞서서 드나들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모임인 인터넷카페에서는 ‘일년 내내 진득한 더위에 범퍼가 끊이지 않아 도보로는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택시강도가 기승을 부리며, 가사도우미와 기사는 흠치고 속이려 들기만 하여서 집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는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생활경험담들이 넘쳐났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나의 첫 발걸음은 참으로 불편하고 두려운 감정이었다.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기사가 몰아주는 자가용을 타고 외출하며 마주한 두툼하고 거무튀튀한 겨울 자켓을 입은 도로의 오토바이 군단은 나의 편견에 확신을 주는 듯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균 연령 29세, 2억6천만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가 거주하며 세계교역순위 25위(2011년 통계) 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나의

편견과 오만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며 알게 된 선생님들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타인이 처한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선함에 부끄러운 얼굴을 숙여야만 했다. 편견을 버리고 나니 17,504개의 섬에 300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저마다의 전통과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자카르타 시내의 쇼핑몰과 식당, 골프장만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였다. 누군가는 일부러라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여행하며 배우는 인도네시아를 경험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오로지 한국만을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탐구적이지도 못했던 나는 인도네시아를 배우는 방법으로 한인니문화연구원의 문을 두드렸다. 시간이 가능할 때마다 문화강좌를 듣고 문화탐방을 따라다녔다. 자카르타내의 갤러리와 박물관 탐방을 하며 배우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는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셨던 흥미진진한 옛날이야기 같았다. 도시에 남겨진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보낸 350년의 역사(실제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전역을 식민지화 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에 함께 마음이 아팠으며, 지역과 민족에 따라 고수되어온 다양한 문화는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멀리 반둥, 족자카르타, 솔로 탐방을 함께한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 되어 5년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약 내가 처음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늘 만나서 몇몇의 사람과 익숙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며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다면 나의 인도네시아생활이 보너스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운이 좋게도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배우면서 알게 된 한인니문화연구원이 인도네시아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그를 통해 나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 될 수 있었다. 귀국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은 TV에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뉴스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고향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고,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서 다행히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날 기회는 점차 커지고 있다.

아쉬운 대목도 물론 있다. 인도네시아인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관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계획만 짜 놓고 실행하지 못했던 코모도 섬과 라자암팻으로의 여행은 두고 두고 아쉽다. 혹시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인도네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다.

최근 들어 롬복과 술라웨시, 발리 등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는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재해로 삶의 터전과 가족과 친지를 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조속히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친다.

Harmony through Friendship

재인니 한인미술협회(KAAI)와 ISI 족자 아티스트

공동기획전 및 워크숍 소개

글: 재인니 한인미술협회 사무장 최희정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ISI (Institut Seni Indonesia - 이하 ISI로 표기) 미술대학 전시장에서 “Harmony through Friendship” 을 주제로 한 공동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인 미술협회 회원 16명의 작품들과 ISI 교수진 및 아티스트 25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양국 미술과 문화의 닮음 그리고 다름, 이를 통한 문화적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교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ISI 측 초청으로 한인미술협회 회원들이 ART JOG 행사 및 ISI대학방문에 초대되었을 때 기획되고 준비된 것으로서, 10명의 미술협회 회원들이 직접 족자카르타에 방문하여 4박 5일간 전시준비 및 오프닝 행사에 참여하고, 이틀 간의 한국 수묵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2일 7시 전시 오프닝에서는, ISI 순수미술대학 학장 Lutse교수와 한인미술협회 신돈철 회장이 공동으로 하얀 캔버스에 검은 획을 긋는 퍼포먼스로 전시회의 개막을 알리며 전시장에 다같이

입장하였는데, 한국식의 리본커팅 과는 사뭇 다른 점이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회 참여작가 이외에도 족자에서 활동하는 Indra Dodi, Erianto Maetek등의 유망작가들도 오프닝에 참석하였고, 인도네시아 Metro TV에서 취재 및 인터뷰를 하는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13일 오전 10시 부터 1차 한국 수묵화 워크숍이 순수미술대학 강의실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인니 한국문화원에서 화선지, 벼루, 붓, 먹, 문진 등의 재료를 지원해 주셨고, 미술협회 감사를 맡고 계신 동양화가 이은수 선생님의 지도하에 2시간 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정전으로 다소 어둡고 더운 교실이었지만, 수묵화 재료와 기법을 처음 배우고 접해보는 학생들의 진지함과 열정 덕분에 미술협회 회원들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의 질감과 먹의 성질, 번짐과 농담, 그림을 그리기 전 차분히 먹을 갈면서

명상을 하는 연습 등, 한국 수묵화의 성격을 알고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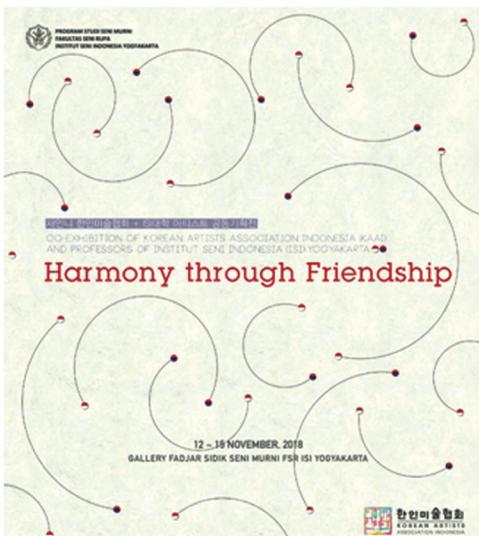
전날의 성공적인 수업으로 인하여,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차 수묵화 워크샵에는 더 많은 학생이 신청하였고 회화과 Titos교수 등도 참여하여 한국 수묵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를 내내 참여한 열성학생들 몇 명은 그새 기법과 먹의 농담을 이용한 멋진 작품을 그려내어 미협회원들을 놀라게도 하였는데, 특히 두 명의 청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화선지에 그려낸 그림들은 저희에게 감동과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종이 부채를 나누어 주고 자유롭게 먹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창의적이고 세련된 기법의 작품을 척척 그려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과연 인도네시아 제일의 명문 미술대학 학생들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정된 수묵화 워크샵 이외에도 서양화가 권미선 회원이 서양화 수업에 초대되어 학생들과 함께 초상화를 그리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국가보조를 받는 저렴한 학비의 국립대학이라 재능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서, 제대로 된 서양화 재료와 연필 등의 기본재료도 부실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인미술협회가 재능 있는 ISI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워크샵을 마치고, 갤러리 및 족자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며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고, Merapi화산 박물관과 Museum Ullen Sentalu를 관람하며 족자의 지형적 특성의 이해와 더불어 족자 및 솔로 왕조의 탄생과 역사, 양쪽 지방 바틱의 특색 등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서로 다른 기후와 환경이 각자의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한 회원들과 여러가지 소감을 나누고 공유할 때, 저희 모두 같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누고 소통하며 베풀고, 또 그를 통해 더 크게 얻는 기쁨과 우정이라는 커다란 선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부족했던 이곳





그리하여 이번 교류전의 주제처럼 “우정을 통한 화합” 이 문화와 예술, 나아가 양국을 하나로 묶는 큰 테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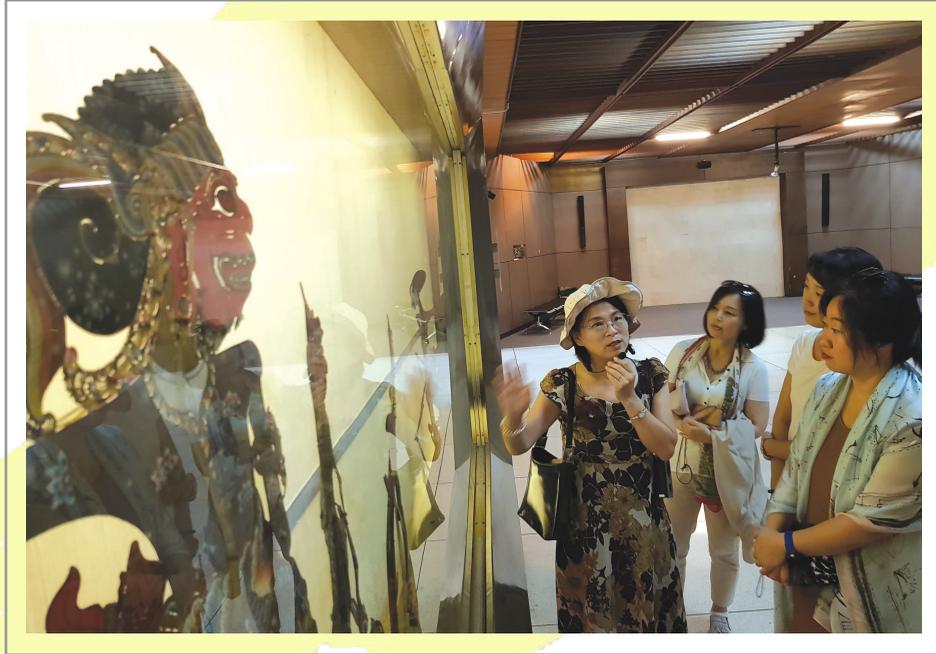
앞으로도 저희 한인미술협회는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예술문화계와 지속적인 관계와 교류를 시도하고 이어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좋은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교류전을 후원해주신 한국문화원, 한인회 양영연 회장님과 전민식 수석부회장님, 한인문예총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긴 여정 동안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한 한인미협 회원들과, 멀리서 응원해준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하며 글을 맺습니다.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덤으로 선사 받았다는 사실 말합니다.

한편으론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이번 교류전 및 워크샵으로 인해 한국문화와 자국문화에 대한 같음과 다름, 또한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소통과 하나됨에 같은 선물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1박2일 자카르타 문화 답사기



글: 팽수진 도슨트 (Asian Civilization Museum
아시아문명박물관, Singapore Art Museum)

자카르타 교민들을 위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 박물관 투어>는 싱가포르의 5개 박물관에서 봉사하는 한국어 전시해설 프로그램인 <뮤지움산책>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 <뮤지움산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FOM 한인도슨트 모임>에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이 있다. 팀장 이은아 도슨트는 중강 기념으로 그 동안 배운 책속의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실제로 체화하기 위해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답사를 제안했다. 모든 조건이 완벽히 맞아 떨어진 11월 21일, 1박2일의 여정으로 우리는 자카르타로 향했다.

자카르타에 도착한 오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의 3시간 해설을 시작으로 아시아 최대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크랄 사원 (Masjid Istiqlal) 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오랜 성당을 방문하고 다음날 아침

따만미니 민속촌의 박물관과 부족 가옥을 둘러보기로 계획되었다.

특히, 신관 국립박물관에서 깊고 흡인력있는 유물 해설을 들려주신 박송숙해설사는 우리를 인도네시아의 고대사를 훑고 도서지역의 금빛 문화까지 빠져들게 만드셨다. 인도네시아의 오랜 역사와 문명을 대변하는 유물들, 네덜란드 강점기의 아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만육천여개의 섬 만큼이나 다채로운 부족의 유물을 살펴본 시간이었다. 또한, 비밀의 정원같은 구관의 야외 중정은 고요한 밤이면 고대 석상들이 몰래 깨어나 여기저기로 산책할 듯한 풍경이 그려져 한없이 신비로웠다. 한편으로는 인류문명의 자산인 유물들이 중정과 건물 내부에 석재상처럼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유물관리의 현실적 한계를 느낄수 있어 안타까운 공감을 나누기도 했다.

장소를 옮겨 높이 솟은 첨탑인 미나렛으로 향한다. 눈길을 사로잡는 미나렛은 이슬람 사원의 부속 건축물로 5번의 예배 시간을 사방에 공지를 할 때 사용되던 장소이다. 현재는 사람의 외침없이 그곳에 설치된 스피커로 대체된다고 한다. 우리는 첨탑의 본체인 그곳 이스띠끄랄 사원으로 향했다. 산스크리트어로 ‘독립’을 의미하는 이스띠끄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부는 340여년 네덜란드와 일본의 긴 식민지배를 벗어난 후 맞이한 역사적 독립을 기념하며 1951년 착공을 시작, 완공하기 까지 약 27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국가적 회교사원 이스띠끄랄 모스크의 사연과 현대적인 웅장함에 놀라고 시원한 공기가 지나가는 친환경 내부 건축설계에 놀라고 경건할 줄로만 알았던 사원내부의 풍경에 또 한번 놀랐다. 신자들은 사원내부 중앙홀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기도 하고 누워서 쉬기도 하며 코란인듯 책이듯 편안한 자세로 여유로운 독서를 즐기기도 했다. 그들의 유일한 신, 알라의 품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와 보였다.

온돌처럼 따뜻한 타일의 온기를 느끼며 설렁설렁 걷는 느린 걸음들은 간간이 부는 시원한 바람과 낮선 곳에서의 이국적인 즐거움에 들떠 가볍고도 경쾌하게 맞은편 고딕양식의 성당으로 향한다. 이 오랜 성당은 1901년에 건립된 St. Mary of the Assumption Cathedral로 모스크와 정면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적 관용과 포용을 상징하는 의미로 고심끝에 바로 성당 맞은편에 이스띠끄랄 사원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른 아침부터 하늘을 뚫고 한낮의 자카르타 보낸 우리의 바쁜 걸음은 멋진 저녁식사로 이어졌고 황송한 환대와 의미있는 교류의 시간을 지나 호텔에 도착, 마침내 침대에 대자로 누웠다. ‘이렇게 길고도 짧은 알찬 하루가 지나는 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흐릿한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천정 코너에 위치한 초록색 화살표! 그것은 말로만 듣던 이슬람의 성지, 메카 방향을 향한



천장의 키블라(Qibla)였다. 출장이든 여행중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루 5번의 기도의 삶이 생활속 곳곳이 배어 있음을 체감했다. 침대 옆 서랍속에는 미주유럽의 성경 대신 다소곳한 ‘코란’이 잠들고 있었음을 일행 모두는 알고 있을까?

이틀날의 따만미니 민속촌! 다양한 부족의 가옥형태와 독특하고 화려한 장식미술들! 그들간의 공통점과 또렷한 개성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무궁무진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0년전 내게는 ‘인도네시아는 곧 발리’라는 무지한 시절이 있었다. 더불어 ‘젓은 지진, 불의고리에 위치한 위험한 나라’라는 편견의 키워드는 내가 아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이었다. 싱가포르 이주 후 12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편의 자카르타 사업이 병행되기도, 우리 가정의 생계가 인도네시아의 통신사에 걸려 있음을 알고서도 그닥 많은 생각의 변화는 없었다. 세 딸과 함께한 육아의 터널을 지나 슬슬 나만의 시간이 조금씩 허락되던 7년전, 아시아문명박물관과 싱가포르 아트뮤지움에서 동남아시아의 유물해설 교육과 현대미술의 이해를 통해 이슬람 문화의 세련됨과 유물의 기능들 그리고 독특한 미감을 갖춘 인도네시아 현대 미술에 내재된 작가들

의 민족성향과 사회적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보게 되면서 나의 편견은 조금씩 무너졌고 언젠गे 자연스럽게 남편의 출장을 통해 자카르타에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 놀랍게도 그 기회는 예상밖으로 오롯이 나의 인연들을 통해 다가왔다. 넝쿨채 굴러온 답사의 기회는 이은아 답사팀장의 제안으로 모두의 호응을 얻고 이수진 선생님과 인연은 우리 모두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이제 내게 인도네시아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수 만개의 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많은 성장의 빛을 가진 보물섬의 나라로 각인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면 또다른 도약을 위한 문화컨텐츠들이 잘 정비 될것이고 소수의 문화가 존중되며 다수의 이슬람문화와 조화를 이룬다면, 또한 싱가포르와 같이 전폭적인 문화적 투자가 지원 된다면 이들의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문화대국으로 우뚝설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음에는 맛집 투어를 겸해 오고 싶은 정도로 입에 착붙는 현지음식들 또한 잊지 못할 즐거움이였다.

이번 일정에 귀한 시간을 쏟고 일정 관리 해주시며 현재 서울시 해설사 과정 수료중이신 안미경 선생님, 방대한 내용들을 쉽고 깊이있게 설명해주신 박송숙 도슨트님, 멋진 자태로 인생사진 찍어 주신 박의태 회장님, 민속촌 동행에서 좋은 말씀 많이 전해 주신 강희중 체육회 회장님 등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경험과 인연을 선사해 주신 이수진 선생님께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싱가포르 뮤지엄해설 프로그램 <뮤지엄산책> 소개 (입장료 이외 무료투어)-

자타르타 교민에게도 <뮤지엄산책>은 열려있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과 함께 매월 일정을 교류할 계획으로 싱가포르여행 계획에 참고해도 좋을듯 하다.

<뮤지엄산책>는 한국어 전시해설봉사 프로그램으로 <FOM한국 도슨트 커뮤니티>의 기획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싱가포르 Friends of the Museum의 도슨트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해설 봉사자 중 18명의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로 교육받고 영어투어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정을 마친 한국인 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내셔널뮤지엄, Asian Civilization Museum, 페라나칸, 말레이 헤리티지센터, 싱가포르 아트뮤지엄등 5개의 뮤지엄에서 해설중이다.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8천 여명이 다녀가신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해설봉사 프로그램으로 얼마전 싱가포르 방문하신 김정숙 여사님도 다녀가신바 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응원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감사장 수여식



지난 11월 7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 회의실에서 “2018 장애인 아시안게임 지원 민간협력위원회” 주최 “응원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감사장 수여식” 이 개최되었다.

응원영상공모전에는 11개팀이 참가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상에 우리컨설팅 (윤지영),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상에 성요셉성당 플로라 (자카르타 아줌마들), 아시안패러게임 지원 민간협력위원회 본부장상에 UPH 한인학생회팀이 각각 수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한인학생회, JIKS 7학년 Brass Band, 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니지부(KOWIN),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10학년 2반 김형섭, 갱스맘, kembar (쌍둥이 이주한, 이주영), 작은 영웅팀이 참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민식 단장, 양영연 공동 위원장, 송광중 본부장이 참석하여 응원을 하면서 즐겁고 가슴 벅찬 순간의 상황을 이야기 나누며 시작하였다.

감사장을 수상한 한국문화원 서포터즈 20명은 경기 기간 8일 모두 응원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고, 강병찬 수상자는 사이클 선수단에 식사를 제공하였고, PT. YUTU SINAR JAYA에서는 가방을 지원하였고, 한바패는 눈에 띄는 응원을 도와 한국팀이 2위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응원영상공모전에 참가했던 영상물은 <http://www.indoweb.org/apg201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안 게임 후원 및 봉사자에 대한 감사패수여식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11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 후원 및 봉사자에 대한 감사패수여식이 가졌다. 지난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후원한 기업대표와 단체장 응원 및 경기지원 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민관합동위원회의 지출내역과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선수단과 본부로부터 어떤 한인사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인도네시아 한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 구분 | 후원인 | 직책 | 회사명 |
|----|---------------------------|----|------------------------------|
| 1 | 양영연 | 회장 | PT. TAEWON INDONESIA |
| 2 | 서영률 | 회장 | PT. PRATAMA ABADI INDUSTRI |
| 3 | 신기엽 | 대표 | PT. HANINDO EXPRESS UTAMA |
| 4 | 전민식 | 대표 | PT. POWERTECH INDONESIA |
| 5 |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인도네시아) | | |
| 6 | 강덕재 | 회장 | PT. LEMBUSWANA PERKASA |
| 7 | 신만기 | 대표 | PT. PARKLAND WORLD INDONESIA |
| 8 | 송창근 | 회장 | PT. KMK GROUP |
| 9 | 김영을 | 회장 | PT. SUNG CHANG INDONESIA |
| 10 | 이종현 | 대표 | PT. LEO KORINSIA |
| 11 | 김준규 | 대표 | PT. CIPTA ORION METAL |
| 12 | 조규철 | 대표 | PT. DONG JUNG INDONESIA |
| 13 | 강호성 | 대표 | PT. ANUGRAH CIPTA MOULD IND. |
| 14 | 최덕열 | 대표 | PT. SHINTA WOO SUNG |
| 15 | 이호덕 | 회장 | PT. VICTOR JAYA RAYA |
| 16 | 승은호 | 회장 | PT. KORINDO GROUP |
| 17 | 최정훈 | 행장 |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 | | | |
|----|-----|-----|---------------------------------|
| 18 | 박재한 | 회장 | PT. BUSANA PRIMA GLOBAL |
| 19 | 배도운 | 회장 | PT. DOOSAN CIPTA BUSANA JAYA |
| 20 | 최종섭 | 사장 | PT. MUARA TUNGGAL |
| 21 | 김주철 | 사장 | PT. STAR CAMTEX |
| 22 | 문영권 | 사장 | PT. JM TECH |
| 23 | 하민수 | 사장 | PT. INCORDAN |
| 24 | 서기선 | 사장 | PT. DASAN PAN PACIFIC INDONESIA |
| 25 | 서영석 | 법인장 | PT. CHANG SHIN INDONESIA |
| 26 | 정용완 | 대표 | PT. HUNG A INDONESIA |
| 27 | 이화수 | 행장 | BANK KEB HANA INDONESIA |
| 28 | 김우재 | 회장 | PT. KOIN BUMI |
| 29 | 김광현 | 법인장 | PT. HWA SEUNG INDONESIA |
| 30 | 강희중 | 대표 | PT. SUNG TECHNOLOGY |
| 31 | 마용도 | 회장 | PT. YONGMA |
| 32 | 김도진 | 행장 | IBK 기업은행 |
| 33 | 이영석 | 법인장 | PT. TK INDUSTRIAL INDONESIA |
| 34 | 김재운 | 대표 | PT. KUNYOUNG INDONESIA JAYA |
| 35 | 이종근 | 대표 | PT. KODECO ENERGY |

‘석양이 아름다운 건 노을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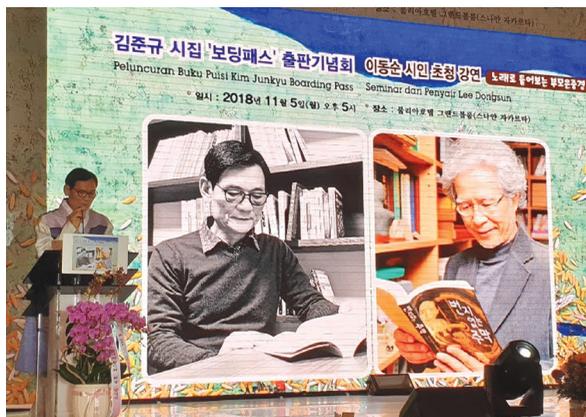
지난 11월5일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시인이자 문학 평론가인 이동순 시인 초청(노래로 들어보는 부모은중경)강연도 함께 열렸다. 칠순의 등단 시인이자 발명 사업가이기도 한 김준규 시인의 첫 시집<보딩패스>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들 및 한인 기업인, 인도네시아 기업인 등 많은 지인들과 문화, 예술 단체장들이 참석한 이 행사는 오프닝 축하 곡인 인도네시아 성악과 한국 가곡을 시작으로 멋진 막이 올랐다. 창작 춤인 현대무용과 어우러진 김준규 시인의 시 “안개꽃”이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국악무용팀의 신명나는 무용이 늦은 가을밤을 물들인 아름다운 행사였다.

‘석양이 아름다운 건 노을 때문이다’ 첫 시집 <보딩패스>를 출판한 올해 11월은 김준규 시인의 칠순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한국문협 인니지부의 자바문학기행에 합류하면서 중부 자바 스마랑의 암바라와 조선 위안부 수용소를 답사하고 기행문 형식의 시를 쓰면서 인니문인협회와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등 청록파 시인들의 활동무대가 된 대구의 계간 문장지를 통해 지난 3월 ‘밤에 온 손님’이란 시로 당선,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시인으로 등단, 천재시인의 수사가 무색하지 않게 시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6개월만에 첫 시집을 냈다. 김준규 시인은 종심(從心)의 시인이다.

그는 70세의 늦깎이 등단 시인으로 그의 영혼은 맑고 프레임에 갇치지 않은 시어(詩語) 선택과 창조적 스킬(skill)로 그의 삶이 살아 낸 종심의 언어로 기성 시인을 능가하는 탁월함이 천재적이다. 그의 시인 등단은 한인사회에 파란을 일으키며 조용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한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김준규 시인은 초로의 삶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김준규 시인은 그동안 한인사회에 각인되지 않은 성공한 성실한 기업가이다. 그는 PT. CIPTA ORION METAL대표로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발명품의 특허를 갖고 이를 생산하는 내실 있는 기업가지만 한인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말없이 헌신하며 한인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공헌해 왔다. ‘석양이 아름다운 건 노을 때문이다.’ 김준규 시인의 <보딩패스>첫 시집 출판은 황혼의 노을이다. 김준규 시인의 시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노을이 되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한다.

글 / 이태복 (시인, 인니문협 사무국장)



인도네시아 한인문학 절정의 터닝 포인트

2018 한국문협 인니지부<인도네시아문학>제5집 출간기념식 후기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이하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서미숙)의 2018년 동인지 <인도네시아문학 제5집>출간기념식이 지난 11월 2일 오후 3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박시은 동포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출간기념식 및 회원 창작노트 발표회는 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양영연 한인회장, 재인니 문예총 박형동 회장, 재인니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 한국문협 싱가포르지부 이진기 회장 등 한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종민 총영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미숙 인니문협 회장의 개회사 및 동인지 발간 취지와 한 해 동안 인니문협의 활동 사항을 소개하는 동영상에 관람하였다. 평소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양영연 한인회장은 축사와 더불어 평소 애송하는 정호승

시인의 시 ‘그리운 사람 다시 그리워’를 낭독하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문인들이 한 줄의 시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달란트로 글을 써달라는 당부를 하며 ‘시 읽어주는 남자’라는 아호雅號를 얻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박미례 한인여성회 회장이 공광규 시인의 시 ‘아름다운 사이’를 신기엽 한인회 명예교문이 즉석에서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낭송해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서미숙 회장은 인도네시아문학 발간사에서 “완성과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삶의 중착역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많은 부분 미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문학과 소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금번 동인지에는 한국문단의 쟁쟁한 초대작품을 비롯해 19명의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들이 시, 수필, 소설, 칼럼 등의 다양한 장르로 ‘디아스포라 문학’이 나아갈 길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64페이지의 활자로 펼쳐진 ‘타국살이에 대한 고난과 외로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이 문학을 통하여 재외국민들의 고난한 가슴이 조금이나마 메워질 것 간절히 염원한다.

글: 이영미(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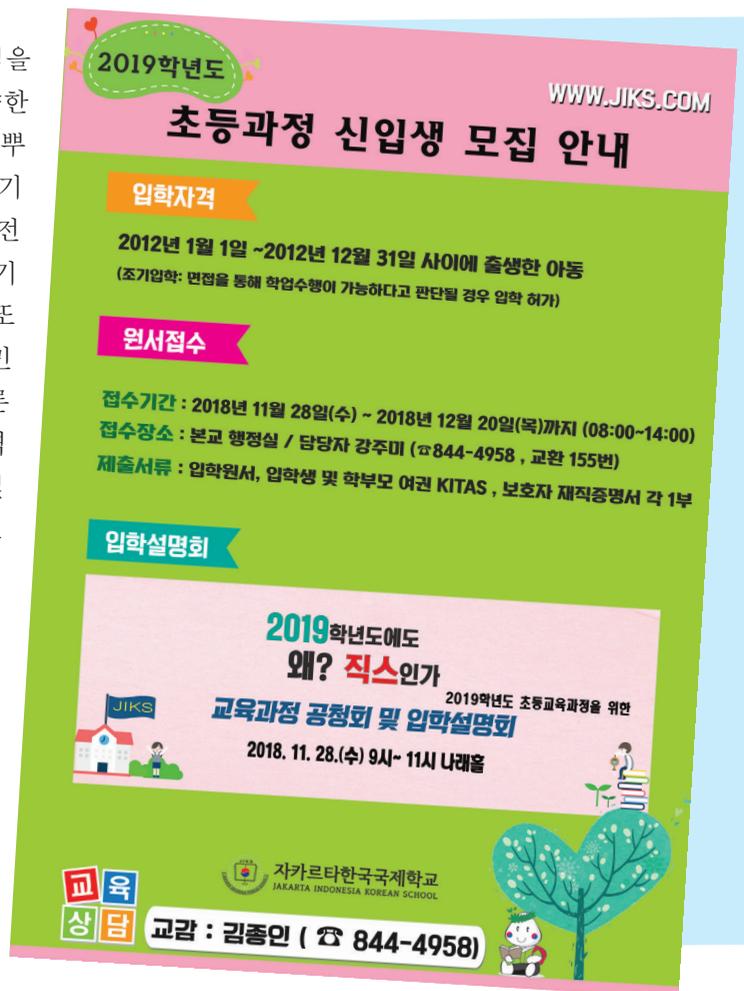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초등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면접을 통해 학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

JIKS는 2018년 11월 28일 9시~11시(나래홀)에서 예비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입학 설명회뿐만 아니라 초등 학부모, 교민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과정 공청회도 개최한다.

JIKS는 한국국제학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교육과정에 기반한 뿌리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학년 코딩 교육 강화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브리지 교재를 이용한 원어민 교사 수업으로 영어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실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체능 원어민 수업 및 인니어 수업 강화로 글로벌 의사 소통 능력을 키우는 외국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 학년 동아리활동 실시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재학급(초·중등 통합 기관)을 설치하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만의 차별화된 영재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JIKS교육에 관심이 있는 예비 학부모님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원서는 행정실 및 한국 슈퍼마켓에 비치되어 있고, 학교 홈페이지 <http://jiks.com> > [입학마당] > [입학서류]에서도 출력 가능하다.



2019학년도 WWW.JIKS.COM

초등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

입학자격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조기입학: 면접을 통해 학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 허가)

원서접수
접수기간: 2018년 11월 28일(수) ~ 2018년 12월 20일(목)까지 (08:00~14:00)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 담당자 강주미 (☎ 844-4958, 교한 155번)
제출서류: 입학원서, 입학생 및 학부모 여권 KITAS, 보호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입학설명회
2019학년도에도 왜? 직스인가
2019학년도 초등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공청회 및 입학설명회
2018. 11. 28.(수) 9시~ 11시 나래홀

교육
상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
교감 : 김종민 (☎ 844-4958)

“아이 라이크 김치”



(학생기자 JIS 신재우)



1. 한국음식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지스 학생들은 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여러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문화는 학교 안에서 한국학생들 만큼이나 비중있게 살아 있으며 현지 친구들이나 서양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한국의 문화에서도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한국의 음식이다. 외국인한테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답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이 라이크 김치” 라고 대답한다. 지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스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sodexo는 학생들에게 맛은 물론, 건강도 지켜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4가지 신메뉴를 만들어 선보였다. 바로 춘천이 자랑하는 ‘춘천 닭갈비’이다. 한국인의 입맛에는 잘 맞는 ‘매운탕’,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김치찌개’, 그리고 대표적 탄수화물을 책임지는 ‘약밥’이다. 11월 26일에서 30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음식들을 판매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음식을 절대로 잊지는 못하게 될 기간일 것 같다.

2. 지스의 바자

지스에서는 매년마다 개최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전교생이 참여하지 않으며, 초, 중, 고 별로 나누어 열린다. 그런데 매년 열리는 지스의 선생들과 부모들이 개최한 바자는



전교생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 바자에서는 물건들을 판매하지만, 각종 놀이들도 있다. 이번 바자에는 학생들 스스로 주관하며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공연들도 있으며 팔루에 있던 쓰나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는 경매도 있다. 바자에서는 지스 밖에 있는 매장들의 직원들이 직접 지스에 와서 물건들이나 음식들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들이 클럽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만든 놀이들도 있다. 바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60,000 루피아씩 내야 하지만, 만11세 이하의 학생들은 무료로 입장해도 된다. 바자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보다 쇼핑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고 다양한 놀이와 오락거리가 있어서 바자 입장이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하곤 한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쇼핑과 놀이들도 할 수 있으며 기부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바자는 전교생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회사법 (14)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7.20.7. 이사회 의 회사 경영 책임

이사회는 정관상의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이사회원이 잘못 혹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원의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다. 법률 혹은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원의 임무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경우에, 발행주식의 최소 10%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혹은 복수 주주, 다른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은 회사의 명의로 해당 이사회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사회원이 잘못했다고 판결하면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승소 시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7.20.8. 이사회 의 회사 대표권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원의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각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누가 회사를 대표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0.8.1. 회사와 해당 이사 간에 법원에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나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7.20.8.2. 상기 7.20.8.2.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에는 회사와 이해 상충이 없는 다른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7.20.8.3. 모든 이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7.20.8.4. 모든 이사회원과 모든 감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한다.

7.20.9.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의 책임 한계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책임이 유한 책임이나 무한 책임이냐는 자주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채무자인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고 회사의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잠적해버리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납품처의 파산 영향으로 납품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바,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에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고찰해본다.

7.20.9.1.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임명하며 파산이 선고된 순간부터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정지되며 관재인이 회사를 장악한다.

7.20.9.2. 관재인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회사를 실사하여 파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7.20.9.3. 주주의 책임의 한계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한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무한책임이란 사유재산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7.20.9.3.1. 회사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7.20.9.3.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 경우

7.20.9.3.3.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가담한 경우

7.20.9.3.4.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법행위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7.20.9.4.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사회원의 책임이 유한 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7.20.9.4.1.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7.20.9.4.2.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인하여 회사 파산을 초래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5년 기간 중 이사회원으로 재직할 적이 있는 자로써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인하여 회사 파산을 초래한 자.

7.20.9.5. 감사회원의 기본 직무인 이사회에 경영에 대한 감독 및 어드바이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회원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7.20.9.6. 채권자는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20.9.6.1. 회사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 경우,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가담한 경우, 혹은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법행위로 회사의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상기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입증 가능하면 채무자인 회사가 망했다고 초기하는 것 보다는 채권자는 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7.20.9.6.2.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불성실 근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이 유한 책임에서 무한 책임으로 바뀐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봤거나 파산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입증 가능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가 망했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7.20.9.6.3. 민사재판은 채무자인 피고가 국외로 피신하여 주소지 혹은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재판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는 상속되므로 주주의 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복주머니 작가 이정호 인도네시아에 복을 전하다

-신들의 그림자인 와양과 함께 복을 말하다

복주머니로 삶의 꿈을 말하는 루나 갤러리 대표 이정호 작가의 전시회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망 리뽀 몰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고유의 재료인 한지, 실크, 자개 그리고 아크릴로 제작된 작품 23점을 전시하였다. 그 중에는 와양 및 바틱과 콜라보한 작품이 16점이었다.

복주머니가 삶의 보물 창고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회화적이고 창의적인 조형미를 더해 현대와 품격 있게 만나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오방색이 와양 및 바틱 문양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정서가 인도네시아, 더 나아가 세계인의 보편적인 정서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정호 작가를 초대한 한국문화원 천영평 원장은 축하사에서 “이정호 작가는 한국 문화의 달을 맞아 행운과 기쁨을 기원하는 마음을 정성껏 작품에 담았습니다. 복주머니, 훈민정음 판본, 와양과 바틱은 하나하나 독립적인 예술 형태이지만, 이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경이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될 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전시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 주관한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은 “복주머니가 시공을 초월하는 생명력으로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인 와양 및 바틱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주머니는 ‘신이 머무는 그림자’ 라고 하는 와양(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와양을 통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다르마)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는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나타내는 바틱과도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의 오방색은 음양사상의 영향을 받아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을 나타내는데, 이는 사방과 중앙을 상징하는

자바의 전통 문양인 바틱 까웅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정호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와양 및 바틱과 접하게 되어 예술세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총 제5회 종합예술제와 같이 열려 한층 의미가 있는 전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호당 가격이 비싼 작품을 만드는 작가보다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복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날까지 복주머니 작품을 다양하게 화폭에 담아 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전시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해둔 한복을 빌려 입고 작가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복주머니와 오방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양과 바틱을 어떻게 콜라보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였다. 우리의 복주머니와 오방색에 대해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해서 가치를 몰랐던 우리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며, ‘가장 인도네시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전시회였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바느질, 女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2018 KOREA ART QUILT FESTIVAL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섬유퀼트협회(ITQA)는 2018년 11월 7일에서 10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인도네시아 초대전에 스물여덟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되었다. 전시장에는 누빔과 천 조각이 섬세한 여성 작가들의 바느질을 통해 새로운 격조와 우아함으로 재탄생 되었다.

동부자바 반유왕이(Banyuwangi) 지역의 간드룽(Gandrung) 반유왕이 춤이 우아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전시장을 채우고 있었다. 추수감사의 뜻이 담긴 이 춤은 결혼식이나 독립기념일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도 추는 춤으로 여성의 승고한 인내와 감성이 배어 있는 바느질로 창조하는 퀼트 작품과 잘 어우러졌다.

정인숙 회장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국작가의 퀼트로 문화교류를 하도록 기회를 준 한인문화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류 중에는 외래문화를 우리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색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퀼트도 한류문화 콘텐츠의 한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말하였다.

이 전시를 기획한 한인문화연구원의 사공 경원장은 “오늘은 바느질 이야기를, 우리들 여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B.C. 3400년 경부터 시작된 생활퀼트는 이제 예술성의 보물창고가 되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와 만나고 있

습니다. 역사의 진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상의 퀼트가 여성들을 만나면 예술이 됩니다.” 며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였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예총, 자총의 단체장, 그리고 멀리 족자에서 퀼트 전시를 보러 온 인도네시아 섬유작가도 있었다.

또한 8일-10일 3일간 150여명이 워크샵에 참여하였는데, 그중 100여명 정도는 인도네시아 인들이었다. 양현옥작가는 전시회보다도 브토니에 워크샵이 더 의미 있었다고 말하였다. ‘연극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어’ 를 강의하시는 손수희 선생은 간단하게 만들고 활용도가 좋아 다른 분들께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IT를 전공한다는 이꾸(Iku) 학생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선물로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한국 사랑을 만드는 시간’ 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페레(There) 양은 친절하 설명 때문에 한국어 더 가깝게 느껴진다며 가르쳐 주신 조혜연선생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틱문양 퀼트를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 채영애 예총 감사의 뜻처럼 다음 전시회에는 한국문양과 콜라보한 감보자 향기나는 멀라며 향기나는 퀼트와 만나기를 기대한다.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한인문화연구원 제공)

2018 임원산조금 납부명단

기준: 2018.10.30 ~ 11.29

| 번호 | 성명 및 직책 | 회사명 | 금액 | | 비고 |
|-----|--------------|----------------------------------|---------------|--------|-----------------|
| | | | 루피아 | 달러 | |
| 103 | 배상경 한인회 명예고문 | PT. TEBO AGUNG INTERNATIONAL | 72,000,000 | | |
| 104 | 배도운 한인회 고문 | PT. DOOSAN CIPTA BUSANA JAYA | 72,000,000 | | |
| 105 | 조현보 한인회 부회장 | PT. KOMITRANDO-EMPORIO | 65,000,000 | | |
| 106 | 김병철 한인회 자문위원 | PT. MISUNG INDONESIA | 27,900,000 | | 2017~2018 |
| 107 | 김태화 한인회 자문위원 | PT. EEN STEEL INDONESIA | | 1,000 | |
| 108 | 배응식 한인회 자문위원 | PT. KORSIA BOAN PERKASA | | 2,000 | 2017~2018 |
| 109 | 이종현 한인회 자문위원 | PT. LEO KORINSIA | 14,400,000 | | |
| 110 | 강형구 한인회 이사 | PT. MERITZ | 27,900,000 | | 2017~2018 |
| 111 | 곽봉규 한인회 이사 | PT. FOODSTAR GLOBAL | 14,400,000 | | |
| 112 | 김육찬 한인회 이사 | PT. NISSI GROUP | 14,400,000 | | |
| 113 | 김종성 한인회 이사 | PT. LAW FIRM INDOYANG & PARTNERS | 14,400,000 | | |
| 114 | 방진학 한인회 이사 | PT. HANSUNG INDOTAMA WORLD | 14,400,000 | | |
| 115 | 성예식 한인회 이사 | PT. F1 LOGIX | 28,956,000 | | 2016~2017 |
| 116 | 이기영 한인회 이사 | PT. FITI INDONESIA | 13,500,000 | | |
| 117 | 이욱찬 한인회 이사 | PT. KORINA SEMARANG | 14,400,000 | | |
| 118 | 이태복 한인회 이사 | PT. DUNIA TIMUR | | 1,000 | |
| 119 | 임덕진 한인회 이사 | PT. MIWON INDONESIA | 14,400,000 | | |
| 120 | 임성필 한인회 이사 | PT. LSP INDONESIA | 27,900,000 | | 2017~2018 |
| 121 | 장윤하 한인회 이사 | PT. HARINDO | 14,478,000 | | |
| 122 | 정제의 한인회 이사 | PT. CHANDRA KOSMETIK INDONESIA | 14,400,000 | | |
| 123 | 조호신 한인회 이사 | PT. NEMO INDONESIA | 14,400,000 | | |
| | | *무기명 납부 | 13,800,000 | | 3월 15일, 우리은행 |
| | | 총 금액 | 3,424,036,000 | 54,000 | |

솔라웨시 발루 재난구호 성금모금

기준 : 2018.11.1 ~ 11.29

| 번호 | 날짜 | 성명 / 회사명 | 금액 | |
|----|----------|---|--------|-------------|
| | | | USD | (Rp.) |
| 51 | 02-11-18 | 김주형 (Kim Joo Hyeong) | | 2,000,000 |
| 52 | 02-11-18 | 한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 | 10,000,000 |
| 53 | 02-11-18 | 즈빠라 한인회 (Korea Asosiasi Jepara) | | 26,000,000 |
| 54 | 09-11-18 | 김경애 (Kim Kyoung Ae) | | 10,000,000 |
| 55 | 21-11-18 | 삼원중공업 (Samwon Heavy Industries Co.Ltd.) | 49,995 | |
| | | 총 모금액 | 63,995 | 919,965,000 |

2018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납부일 순

| 번호 | 성명 | 금액(IDR) |
|-----|-----|---------|
| 110 | 이강현 | 600,000 |
| 111 | 신만기 | 300,000 |
| 112 | 안윤근 | 300,000 |
| 113 | 방진학 | 600,000 |
| 114 | 조규철 | 600,000 |
| 115 | 김태화 | 600,000 |
| 116 | 김종희 | 300,000 |
| 117 | 승은호 | 300,000 |
| 118 | 승범수 | 600,000 |
| 119 | 홍종서 | 600,000 |
| 120 | 이정휴 | 300,000 |
| 121 | 김서경 | 600,000 |
| 122 | 송광종 | 300,000 |
| 123 | 김영주 | 300,000 |
| 124 | 권희정 | 300,000 |
| 125 | 고영철 | 300,000 |
| 126 | 성예식 | 300,000 |
| 127 | 양태화 | 300,000 |
| 128 | 홍기호 | 600,000 |
| 129 | 유주완 | 600,000 |
| 130 | 최원혁 | 600,000 |
| 131 | 이현상 | 301,000 |
| 132 | 김석 | 300,000 |
| 133 | 안창섭 | 600,000 |
| 134 | 배도운 | 600,000 |
| 135 | 배재호 | 600,000 |
| 136 | 김경근 | 300,000 |
| 137 | 강호성 | 600,000 |
| 138 | 김종성 | 600,000 |
| 139 | 안선근 | 600,000 |
| 140 | 노예범 | 300,000 |
| 141 | 김문수 | 300,000 |
| 142 | 이세호 | 600,000 |
| 143 | 곽봉규 | 600,000 |
| 144 | 김육찬 | 600,000 |
| 145 | 김민규 | 600,000 |

| | | |
|-----|-----|---------|
| 146 | 김병철 | 600,000 |
| 147 | 최정남 | 600,000 |
| 148 | 김영섭 | 300,000 |
| 149 | 이승원 | 300,000 |
| 150 | 이화수 | 600,000 |
| 151 | 송판원 | 600,000 |
| 152 | 이종현 | 600,000 |
| 153 | 정제의 | 300,000 |
| 154 | 최덕열 | 600,000 |
| 155 | 이지현 | 300,000 |
| 156 | 양시완 | 600,000 |
| 157 | 손용 | 300,000 |
| 158 | 이진수 | 300,000 |
| 159 | 표기훈 | 600,000 |
| 160 | 조현보 | 600,000 |
| 161 | 이옥찬 | 300,000 |
| 162 | 윤태현 | 600,000 |
| 163 | 박기현 | 600,000 |
| 164 | 이상득 | 300,000 |
| 165 | 김송정 | 600,000 |
| 166 | 이완주 | 300,000 |
| 167 | 김선영 | 600,000 |
| 168 | 임성필 | 600,000 |
| 169 | 이진호 | 600,000 |
| 170 | 이지완 | 600,000 |
| 171 | 배상경 | 600,000 |
| 172 | 백인현 | 300,000 |
| 173 | 강형구 | 600,000 |
| 174 | 오영란 | 600,000 |
| 175 | 김경국 | 600,000 |
| 176 | 임덕진 | 600,000 |
| 177 | 배응식 | 300,000 |
| 178 | 조호신 | 600,000 |
| 179 | 성예식 | 300,000 |
| 180 | 이기영 | 300,000 |
| 181 | 최지영 | 300,000 |

경성대, 인도네시아 USB 대학과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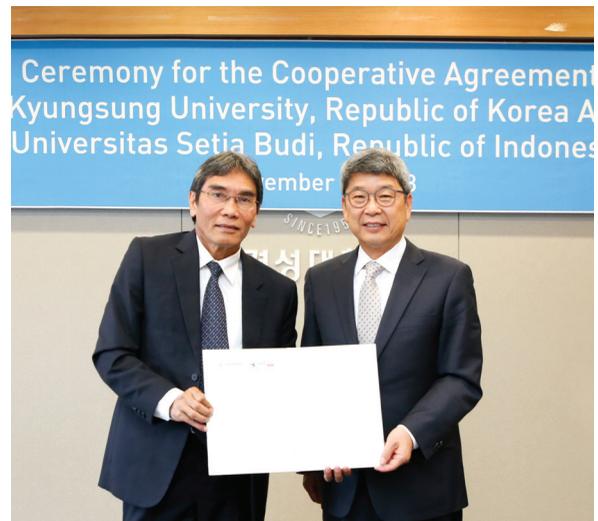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는 지난 11월 7일 인도네시아의 스티아 부디 대학교(Universitas Setia Budi)와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두 대학은 교수진 방문에 의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성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이며, 이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매년 교육부 GKS 우수자비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4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성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약은 인니 기업 순위 상위에 올라있는 한국계 현지 투자기업 ‘코린도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스티아 부디 대학교 총장 일행의 경성대학교 방문으로 성사되었다.

경성대학교는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스티아 부디 대학교는 단일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만큼 우리대학의 인도네시아 학생교육에 대한 강점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공: 코린도)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23

인도네시아 ..
년 신뢰와 200명 전문 직원이 지원합니다
인재채용(헤드헌터), 아웃소싱, 회사설립, 인사컨설팅 외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 | | | |
|--------------|-----------|------------|--------|
| 한국대사관 | 2967 | 2555 | |
| 영사과 | 2967 | 2580 | |
|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 2967 | 2570 | |
|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 574 | 1522 | |
| 한국국제협력단 | 2992 | 1900, 2992 | 2100-1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 6525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527 | 2612 | |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2903 | 5650 | |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 5785-3030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5292 | 1302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954 | 03357 | |

• 한인단체

|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 2515 |
|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 0812 | 1960 308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 110 234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5 | 11708882 |
| 한인니문화연구원 | 0816 | 1909 976 |

• 한인잡지

| | | |
|------|------|------|
| 한인뉴스 | 521 | 2515 |
| 교민세계 | 739 | 9025 |
| 여명 | 9955 | 5859 |

• 교육기관

| | | |
|-----------------|------|---------|
| 한국국제학교 (JKS) | 844 | 4958-61 |
| 간디국제학교 | 690 | 9902 |
|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 7884 | 1226 |
| 싱가폴국제학교 (SIS) | 7591 | 4414 |
| (끌라빠가딩) | 460 | 8888 |
| 영국국제학교 (BIS) | 745 | 1670 |
|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 750 | 3640 |
| 북국제학교 (NJIS) | 453 | 1001 |
| 호주국제학교 (AIS) | 782 | 1141 |
| 일본학교 (JJS) | 745 | 4130 |
| 네덜란드국제학교(NIS) | 782 | 3929 |

| | | |
|-------------------------|------|----------|
| 독일국제학교(DIS) | 537 | 8080 |
| TAIPEI 국제학교(JITS) | 452 | 3273 |
| SPH (땅그랑) | 546 | 0234 |
| (찌까랑) | 897 | 2786 |
| RICS | 7590 | 3342 |
|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 0812 | 971 2306 |
| LYCEE Int. FRANCAIS | 750 | 3062 |
| JIPS | 3004 | 2885 |
| JIMS | 744 | 4860 |
| PAKISTAN EMBASSY SCHOOL | 390 | 4137 |
| ACG 국제학교 | 780 | 5636 |
| ICSC | 780 | 7313 |
|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 7590 | 8820/50 |

• 유치원

| | | |
|------------------|-------------------|------|
| Hansol Kids | 765 | 6588 |
| Brain School | 7179 | 4787 |
| Bambino (Cipete) | 227664497/7203356 | |
| (Patra Kuningan) | 8378 | 3783 |
| 사랑 | 835 | 1540 |
| 성모 | 7884 | 2467 |
| 하나 | 844 | 5283 |
| 리틀램스쿨(자카르타) | 750 | 0739 |
| (끌라빠가딩) | 471 | 8047 |
| (땅그랑) | 558 | 7227 |

• 골프장

| | | |
|-------------------|------|----------|
| BOGOR RAYA | 0251 | 827 1888 |
| CENKARENG | 5591 | 1111 |
| CILANGKAP | 8459 | 5687 |
| CIKAMPEK | 0264 | 317 007 |
| DAMAI INDAH [BSD] | 537 | 0290 |
| EMERALDA | 875 | 9019 |
| GADING RAYA | 546 | 7668 |
| GUNUNG GEULIS | 0251 | 825 7500 |
| HALIM 1 | 800 | 5762 |
| HALIM 2 | 809 | 0729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 | | |
|-----------------|----------|------|
| IMPERIAL | 546 | 0120 |
| JABABEKA | 893 | 6148 |
| JAGORAWI | 875 | 3810 |
| KAPUK | 588 | 2388 |
| KARAWANG | 0267)405 | 888 |
| KEDATON | 5930 | 0000 |
| KEMAYORAN | 654 | 1156 |
| KRAKATAU | 0254)372 | 030 |
| LIDO | 0251)822 | 1008 |
| MATOA | 787 | 0864 |
| MODERN | 552 | 9228 |
| PALM HILL | 8795 | 4307 |
| PANGKALAN JATI | 751 | 3326 |
| PERMATA SENTUL | 8795 | 1787 |
| PONDOK CABE | 740 | 5385 |
| PONDOK INDAH | 769 | 4906 |
| RAINBOW HILL | 0251)827 | 2111 |
| RANCAMAYA | 0251)824 | 2282 |
| RAWAMANGUN | 475 | 4732 |
| ROVER SIDE | 867 | 1533 |
| ROYAL JAKARTA | 8088 | 4488 |
| SAWANGAN BARU | 740 | 2194 |
| SEDANA | 0267)644 | 730 |
| SENTUL HIGHLAND | 8796 | 0266 |
| TAKARA | 599 | 1227 |

● **골프교습**

| | | |
|---------------|------|---------|
| Easy Golf | 801 | 2048 |
|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 392 | 17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 8166 |
| 심스골프 | 570 | 3063 |
| 배준원골프교실 | 781 | 7679 |
| PGA골프레슨(까라와찌) | 5577 | 8936 |
|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 0811 | 143 437 |

● **골프샵**

| | | |
|---------------------|------|--------|
| 교민프로골프샵 | 5577 | 1006 |
| 따만사리골프샵 | 546 | 0838 |
| 레네세계골프 | 739 | 8312 |
| 한양(골라빠가딩) | 450 | 4364 |
| EFC Golf | 725 | 0057 |
| 혼마플레이골프 | 344 | 2540 |
| MFS골프 | 725 | 0057 |
| Play Golf | 722 | 9587 |
| 월드 | 552 | 7434 |
| Bridgestone Golf | 7279 | 8123 |
| Love Green Halim | 8778 | 2771~2 |
| Love Green Cikarang | 8990 | 7881 |

동문회

● **중/고교**

| | | |
|--------------|------|-----------|
| 강경상고(민병무) | 0818 | 879 149 |
| 경기고(구본찬) | 780 | 0204 |
| 경남공고(이봉규) | 0812 | 902 3800 |
| 경남중고(정낙현) | 0813 | 8293 8557 |
| 경동고(강성원) | 0812 | 8830 8566 |
| 경북고(노경인) | 0815 | 1901 0575 |
| 경북고(이병수) | 0816 | 181 3615 |
| 경성고(박영권) | 0813 | 8805 1296 |
| 경신고(김진태) | 7883 | 6372 |
| 경주중고(김홍규) | 0818 | 141 635 |
|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 0815 | 1428 9329 |
| 계성고(최상록) | 0811 | 249 038 |
| 광주고(선홍규) | 0813 | 1536 5223 |
| 광주 사레시오중고 | 548 | 5112 |
|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 527 | 0150 |
| 광주 금호고 | 0815 | 1903 5802 |
| 광주 진흥고(박호섭) | 0858 | 7650 6040 |
| 남성중고(임석균) | 515 | 9277 |
| 대구고(김현철) | 0818 | 718 535 |
| 대구대륜고(노태진) | 0816 | 835 185 |
| 대구 상고(김진우) | 825 | 0581 |
| 대구 영남고(오승현) | 0858 | 4653 6899 |
| 대광중고(이민규) | 0816 | 880 018 |
| 대원외고(권기훈) | 0877 | 7779 4668 |
| 대전고(윤내선) | 426 | 2954 |
| 덕수고(성기운) | 0816 | 114 7364 |
| 동대문상고(곽기석) | 867 | 3837 |
| 동래고(박형남) | 0819 | 555 3456 |
| 동성고(홍창형) | 0812 | 102 2670 |
| 동아고(여병철) | 0811 | 187 554 |
| 동인고(차명훈) | 0815 | 950 0461 |
| 마상고(김만수) | 0811 | 122 5239 |
| 목포중고(김용진) | 568 | 0517 |
| 배재학당(이성수) | 0815 | 1428 0295 |
| 배정고(김상훈) | 0817 | 659 9473 |
| 보성고(김유호) | 5940 | 1282 |



OPEN HOUSE

West Campus | Fri, 8 Feb 2018
South Campus | Sat, 9 Feb 2018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ur Campuses

South Campus:

Jl. Car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South Jakarta 12430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 II No. 11, Sunrise Garden West Jakarta 11520

T: +6221 581 2228

f Ichthus Schools

▶ Ichthus School

www.ichthusschool.com

| | |
|---------------|----------------|
| 보성교우회(박지배) | 0811 976 537 |
| 부산기고(채윤규) | 026 751 2483 |
| 부산 동고(이동훈) | 0811 190 7967 |
| 부산상고(박갑수) | 0812 952 5404 |
| 부산 중앙고(송명석) | 0811 834 412 |
| 부산고(조명국) | 0811 1046255부 |
| 산 외고(선진세) | 0813 8536 8434 |
| 서울고(이상열) | 0811 916 953 |
| 서울 대신고(서영석) | 0813 1139 7145 |
| 선린상고(김기석) | 0817 648 9321 |
| 성남고(성기채) | 0815 1070 2424 |
| 성동고(구본욱) | 025 161 1466 |
| 성원고(강변창) | 0811 891 458 |
| 수원 유신고(안성욱) | 0813 1626 7777 |
| 순천 중고(김정욱) | 0815 19329650 |
| 송문고(김영언) | 0816 937 269 |
| 신일고(금민철) | 0816 864 677 |
| 심인고(김종필) | 0815 1305 4150 |
| 안양공고(조한영) | 0812 859 8483 |
| 양정고(이종환) | 0815 1033 1001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등포고(정하승) | 0811 140 334 |
| 오산고(조동혁) | 0815 7432 7769 |
| 용산고(박승래) | 0813 1842 1269 |
| 유한공고(이선웅) | 0812 071 210 |
|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 0818 912 698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전주고(남택열) | 0811 877 108 |
| 정석항공고(백승엽) | 0811 903 144 |
| 중동고(김일태) | 0812 1922 1462 |
| 중앙고(정재익) | 0811 910 013 |
| 진주 대아고(김영진) | 5522 0041 |
| 청주고(조영선) | 0815 1901 4477 |
| 충남고(이수현) | 0811 175 126 |
| 한성고(박창화) | 0816 780 751 |
| 해광고(서동희) | 0813 9839 9286 |
| 휘문고(맹중호) | 0818 973 986 |

• 대학교

| | |
|-------------|----------------|
| 강원대(송영석) | 0812 1326 5977 |
| 건국대(조선용) | 0811 910 6707 |
| 경기대(박호섭) | 0858 76506040 |
| 경북대(김규식) | 0816 182 3748 |
| 경희대(양승민) | 0811 164 367 |
| 계명대(백성영) | 871 2371 |
| 고려대(이광수) | 0813 8026 1353 |
| 공군 장교단(정태훈) | 0811 9891 403 |
| 부경대(이제원) | 0812 968 9797 |
| 동국대(염정운) | 0817 681 8599 |
| 동아대(서종균) | 0811 850 212 |
| 목포해양대(이종재) | 08111 975 205 |

| | |
|-----------------|----------------|
| 부산대(유제상) | 0811 841 510 |
| 부산외대(이동훈) | 0816 781 564 |
| 서강대(이철우) | 08121177399 |
| 서울대(정무웅) | 797 5959 |
| 성균관대(김진태) | 0818 953 949 |
| 숙명여대(서영자) | 0815 1324 2799 |
| 숭실대(김학수) | 0811 879 701 |
| 아주대(서보상) | 0815 1902 4220 |
| 연세대(금민철) | 0816 864 677 |
| 영남대(김상수) | 0812 103 8707 |
| 영산대(최재혁) | 590 0401 |
| 울산대(최재호) | 723 0917 |
| 이화여대(김미송) | 0811 122 0566 |
| 인하대(이기홍) | 0816 812 507 |
| 전남대(최병욱) | 0816 188 1233 |
| 전북대(최성호) | 0815 7232 3689 |
| 중앙대(손동근) | 0811 844 247 |
| 충남대(노제익) | 452 6968 |
| 충북대(최병인) | 0817 778 857 |
| 한국외대(신성철) | 0818 936 943 |
| 한국해양대(이승준) | 0811 190 7718 |
| 한양대(임영석) | 0811 944 338 |
| ROTC(사무국장: 김성일) | 0811 805 606 |
| 육군학사장교(김상진) | 0812 8779 9035 |

• 은행

| | |
|-------------|-----------|
| 수출입은행 | 525 7261 |
| KEB 하나은행 본점 | 522 0223 |
|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 2995 1915 |
| 신한은행 | 2975 1500 |

• 가구

| | |
|-----------|----------------|
| 조지언 퍼니처 | 766 0364 |
| 아이니갤러리 | 581 4690 |
| 올댓티크 원목가구 | 0858 8831 1218 |

• 건강식품/건강원

| | |
|------------------|--------------|
|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 520 7662 |
| 경동건강원 | 7028 4262 |
| 고려건강원 | 081 690 3990 |
| 부아메라 | 0816 1854 58 |
| 한국건강원 | 5579 6411 |
| 황소건강원 | 5576 7628 |
| 솔진생코리아 | 7278 8287 |
| 이름황성주생식 | 5296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 | |
|-------------|-----------|
| 글로벌링 | 725 1606 |
| 넥스텔링크 | 525 3187 |
| 데이콤 | 720 7551 |
| 킹폰 | 574 0888 |
| 현대 텔레콤 | 5579 1226 |
| Hallo Phone | 5290 0233 |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가시 서울 8895 7604

| | | | | |
|------------------------------|---------------------------|------------------|-------------------------|----------------|
| 2018년 한인 문예총 | 김혜정 전시부회장/헤리티지 |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 0878 5480 4815 | |
| |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 0811 876 547 | |
| <회장단 & 집행부> |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 서예협회장 : 송판원 | 0816 1840 762 | |
|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 0812 1316 2064 | |
| 채영애 감사 |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 0816 745 384 | |
| 사공경 고문 |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 0815 9101 898 | |
| 강희중 자문 |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양상블 |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 0811 9005 639 | |
| 신돈철 자문 | | 월화차 회장 : 이춘순 | 0878 8333 3359 | |
| 이수진 수석 부회장 | <17개 소속 단체장> |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 0816 745 384 | |
|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 0811 924 328 |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 0811 1636 210 |
|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 0811 902 003 | 한바패 회장 : 박형동 | 0811 149 586 |
|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 루시 플라워 회장 : 최정순 | 0811 834 026 |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 0815 1941 1756 |
|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 0812 8178 050 | 헤리티지코리아섹션 대표 : 김상태, 김혜정 | |

| | |
|---------|----------------|
| 베다니1호점 | 9318 0458 |
| 베이징 | 0254-837 0242 |
| 보신명가 | 789 0220 |
| | 0254-848 4111 |
| 본가 | 739 6229 |
| 삼원가든 | 2988 9505 |
| 설악추어탕 | 722 1852 |
| 소래포구 | 8990 5051 |
| 씨티서울 | 515 0415 |
| 아랑22 | 5140 1245 |
| 아리정 | 739 6549 |
| 우장군 | 725 6181 |
| 유미 | 720 7464 |
| 청기와 | 726 1924 |
| 청담가든 | 0815 7342 5802 |
| 청해수산 | 527 8721 |
| 토박 | 725 1135 |
| 하누 | 725 5042 |
| 한강가든 | 0813 1988 5751 |
| 한솔 | 5290 3417 |
| 한양가든 | 2751 7370 |
| 이가네 | 6669 5500 |
| 한옥 | 0254-385 588 |
| 강산 | 2452 0569 |
| 깜닭 | 4584 5837 |
| 다미 | 4585 0040 |
| 대장금 | 0816 885 956 |
| 마포갈매기 | 0812 9313 9503 |
| 명가면옥 | 8990 4552 |
| 미스터 사시미 | 4585 3484 |
| 미추홀 | 6583 1472 |
| 산정(찌까랑) | 2909 3454 |
| (땅그랑) | 547 3172 |
| 서울 | 4585 4454 |
| 설악추어탕 | 2937 5435 |
| 송가네삼계탕 | 4585 4422 |
| 아래향 | 4584 8476 |

| | |
|------------|----------------|
| 황금밥상 | 4585 3402 |
| 감미옥 | 5579 4612 |
| 강나루 | 5576 8222 |
| 강촌 | 5579 3681 |
| 꼬꼬파리아 | 0254 394 255 |
| 대가야 | 547 5511 |
| 명가면옥 | 552 2745 |
| 산들 | 5579 5821 |
| 상하이 | 5573 5550 |
| 산해진미 | 5577 8182 |
| 서울일식 | 546 0840 |
| 아리수 | 0254-781 0059 |
| 알리사 | 0254-60 1430 |
| 오리랑장어랑 | 5577 6457 |
| 우리들 | 552 4047 |
| 조선민물장어 | 5573 3308 |
| 종가레스토랑 | 551 3273 |
| 청기와 | 0858 1377 3388 |
| 체어맨 | 5577 8585 |
| 태능갈비 | 7055 0888 |
| 테라스 가든 | 8493 9321 |
| 한마당 | 5577 6770 |
| 산정 까라와치 | 547 3172 |
| 산정 찌까랑 | 2909 3000 |
| 산정 까복 | 3005 1650 |
| 요리가 | 4584 4502 |
| 본가 (족자카르타) | 027 4436 1301 |
| 치맥 (족자카르타) | 027 2831 440 |

● **신문**

| | |
|------------|-----------|
|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 520 7207 |
| 데일리코리아 | 725 7447 |
| 조선일보 | 2930 6886 |
| 중앙일보 | 7590 8308 |
| 한국일보 | 769 1081 |
| 한인포스트 | 4586 9199 |
| 타임인도네시아 | 5028 4996 |

| | |
|--------------|-----------|
| JAKARTA POST | 530 0476 |
| 자카르타경제신문 | 5290 0117 |

● **안경원**

| | |
|-------|----------|
| 시티안경원 | 726 5009 |
|-------|----------|

● **여행사**

| | |
|-----------------|----------------|
| 나래여행 | 5296 0749 |
| 하나족자트레블 | 0274 887 488 |
| 굿데이투어 | 4586 0598 |
| 그린관광 | 798 3322 |
| Red Cap | 5797 3397 |
| Rodem Tour | 4587 8833 |
| 마타아리 여행사 | 521 2212 |
| 부미관광 | 7279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9274 1780 |
| 솔로몬투어 | 0813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2903 6647~50 |
| 스카이투어 | 391 1381 |
| 우리투어 | 7918 4239 |
| 153 TOUR | 5720 153 |
| 코리아트레블 | 230 3116 |
| 코인관광 | 720 7230 |
| 하나관광 | 520 2450 |
| 호산여행사 | 691 3602 |
| HAPPY TOUR | 2950 8903 |
| Inko Batam(바뎀) | 0778 462 500 |
| 사랑투어 | 2912 5099 |

● **인니어통역/번역**

| | |
|----------|--------------|
| Mrs. Lee | 021 743 2687 |
| CITRA | 781 7771 |

● **인터넷**

| | |
|-------------------|-----------|
| HANASTAR INTERNET | 2270 8282 |
| S-Net | 7080 7886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인테리어

| | | |
|---------------|------|-----------|
| AEGIS BLIND | 2943 | 3876 |
| H2 Stuff | 4586 |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 0821 | 2564 1777 |
| | 7590 | 6767 |
| Living A&I | 7278 | 0704 |
| 로만인테리어 | 720 | 4851 |
| 아이니인테리어 | 0812 | 1928 5578 |
| INNOMATE | 7919 | 2006 |
| 올댓테크 원목가구 | 0858 | 8831 1218 |
| INPLAN DESIGN | 0857 | 1198 6516 |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 소명통관 | 4585 | 9283 |
| 샌다이 이주화물 | 8770 | 6361 |
| 아네카 트라스 | 520 | 4181 |
| 트라스 우따마 | 829 | 6218 |
|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 5591 | 5770 |
|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 2902 | 3838 |
| CARGO PLAZA | 831 | 7779 |
| DHL | 7919 | 6677 |
| FIRSTINDO EXPRESS | 5296 | 0024 |
| PANTOS LOGISTICS | 8998 |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 8488 |
| HANINDO EXPRESS | 252 |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 3455 |
| QCN | 7884 | 1550 |
| Wings Global | 4585 | 8053 |
| ZIMMOAH | 2937 | 5670 |
| WIKASA | 8379 | 1935 |

• 자동차 정비

| | | |
|------------|-----|------|
| 뱅크 코리아 모터스 | 885 | 4034 |
|------------|-----|------|

• 종교 단체

<기독교>

| | | |
|-----------|------|------|
| 꿈이있는교회 | 548 | 3044 |
| 늘푸른교회 | 766 | 9191 |
| 동부교회 | 4587 | 7317 |
| 연합교회 | 7279 | 5625 |
| 예사랑침례교회 | 4176 | 5140 |
| 소망교회 | 739 | 6487 |
| 순복음교회 | 739 | 2373 |
| 안디옥교회 | 751 | 5525 |
| 열방교회 | 552 | 5164 |
| 열린교회 | 844 | 5537 |
| 위자야한인교회 | 7279 | 3145 |
| 자카르타사랑의교회 | 450 | 7324 |
| 주님의교회 | 831 | 3843 |
| 중앙감리교회 | 533 | 2749 |
| 짜까랑임마누엘교회 | 8990 | 3133 |
| 참빛교회 | 718 | 3535 |
| 한마음교회 | 739 | 5035 |

• 증권/보험

| | | |
|----------|------|-----------|
| 삼성화재 | 021 | 8062 2000 |
| 우리코린도증권 | 797 | 6210 |
| 클레몽종합금융 | 797 | 6363 |
| 메리츠코린도보험 | 797 | 6242 |
| 키움증권 | 526 | 1326 |
| KDB 대우증권 | 515 | 1140 |
| KB손해보험 | 3199 | 0247 |
| 한화생명 | 727 | 88150 |

• 컨설팅

| | | |
|----------------|------|-----------|
| 오롬컨설팅 | 4585 | 4910/11 |
| 럭키비자 | 0813 | 1133 2122 |
| 글로벌컨설팅 | 7280 | 0524 |
|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 8990 | 0088 |
| 두왕컨설팅 | 520 | 7153 |
| 새천년컨설팅 | 5290 | 0040 |
| 우리컨설팅 | 7918 | 4239 |
| 컨설팅 21 | 799 | 6182 |
| 퓨릭컨설팅 | 5596 | 3213 |
| 한생컨설팅 | 5290 | 0670 |
| KMAQA (ISO인증원) | 573 | 1576 |
| 비엔시 컨설팅 | 2278 | 0470/4013 |
| 한국컨설팅 | 0811 | 876 204 |

• 인재채용

| | | |
|--------------------|-----|------|
| OSSelanjaya(세르나자야) | 572 | 7214 |
|--------------------|-----|------|

• 컴퓨터, IT

| | | |
|-----------|------|------|
| 대인정보시스템 | 230 | 5533 |
| 레드망고(PC방) | 4584 | 4186 |

<천주교>

| | | |
|----------|------|------|
| 한인성요셉성당 | 7884 | 3782 |
| (짜까랑 공소) | 8911 | 7547 |

<불교>

| | | |
|---------------|------|---------|
| 조계종 능인정사 | 724 | 7261 |
|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 765 | 6036 |
| (동부자바포교원) | 0818 | 333 491 |
| 법연종 법연원 | 720 | 8607 |
| 조계종 고려정사 | 724 | 3571 |

<이슬람>

| | | |
|------------|-----|------|
|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 871 | 6906 |
|------------|-----|------|

| | | |
|---------------------|------|----------|
| 리콤컴퓨터 | 725 | 1606 |
| 컴퓨터 원 | 5576 | 5228 |
| 지텍컴퓨터 | 5696 |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 0950 |
| 한비텔 | 8379 | 1144 |
| 인도웹 www.indoweb.org | 0811 | 888 9609 |

• 택시

| | | |
|-------------|-----|------|
| SILVER BIRD | 798 | 1234 |
| BLUE BIRD | 794 | 1234 |

• 하숙

| | | |
|---------------|------|-----------|
| 경북공 하숙(리보찌까랑) | 0813 | 1415 7581 |
| 가딩 홈스테이 | 9661 | 5877 |
|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 0858 | 1442 2900 |
|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 0858 | 1341 3222 |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0813 | 1514 9978 |
| 교민 하숙 | 0816 | 163 5558 |
| 나인비즈니스 하숙 | 9940 | 5005 |
| 동지 하숙 | 3608 | 9316 |
| 리보찌까랑 하숙 | 0812 | 1066 7757 |
| 레저 게스트하우스 | 0811 | 143 437 |
| 모나리자 | 8990 | 9570 |
| 모이하숙 | 0878 | 8515 1653 |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 0813 | 8059 1625 |
| 세명 하숙 | 0852 | 1757 5525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 0821 | 1336 1111 |
| 소망 하숙 | 0813 | 1724 9911 |
| 썬터 하숙 | 726 | 8775 |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 0815 | 1780 3680 |
| 이모네 하숙 | 0818 | 964 946 |
| 인다 게스트하우스 | 0822 | 6074 8228 |
| 엘지 게스트하우스 | 0812 | 100 7135 |
| 엘림 게스트하우스 | 0815 | 181 3122 |
|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 0815 | 1024 8888 |
|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 0817 | 127 887 |
|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 0811 | 888 9609 |
| 한발 | 830 | 9990 |
| 한울타리 | 739 | 5841 |

| | |
|------------|----------------|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 723 8302 |
| 현대 하숙 | 0818 795 787 |
|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 0813 8822 7783 |
| BSD등불 하숙 | 0852 1985 1523 |
| 힐링 게스트하우스 | 0821 1427 5415 |

• 학원/교육업

| | |
|------------------|---------------|
| 대교인도네시아 | 5292 0911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 546 4531 |
| 뮤직아카데미 | 0811 9103 108 |
| 박학천논술 | 4586 7844 |
|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 546 4531 |
| 예원 | 720 8783 |
|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 2942 7062 |
| 종로학원 | 7883 5202 |
| 토마토미술 | 723 3699 |
| | 0817 9876 950 |
|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 0813 989 2222 |
| 하이스트학원 | 720 2022 |
| 해동검도 | 522 7204 |
| 해보다외국어학원 | 0888 843 0415 |

• 항공

| | |
|----------------------|---------------|
| 대한항공 (시내) | 521 2180 |
| (터미널3) | 8082 219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아시아나 항공 (시내) | 572 1381~3 |
| (공항지점) | 5591 3229 |
| 싱가폴 항공 | 570 4411 |

• 호텔

| | |
|--------------------|----------------|
| 그랜드멜리아 | 526 8080 |
| 만다린 | 314 1407 |
| 몰리아 | 574 7777 |
| 샹그릴라 | 570 7440 |
| 싸이드자야 | 570 4444 |
| 하야트 | 390 1234 |
| 크라운플라자 | 526 8833 |
| 술탄 | 573 8011 |
| GSI Hotel & Resort | 0858 8248 3211 |
| 자바 팔레스 | 2928 1111 |

• 환전

| | |
|----------|----------------|
| 굿-머니 | 5793 9990 |
| 그린환전소 | 0815 1423 0114 |
| 골라빠가징 | 453 1166 |
| 사강머니체인저 | 5290 0233 |
| 위나머니체인저 | 7278 0929 |
| 뚜나스인입 | 797 6105 |
| 참피온머니체인저 | 4585 1158 |
| 환전 | 712 8556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 재인니 대한체육회

http://www.ksai.or.kr E-Mail: sports-ind@naver.com

| 구분 | 직책 | 성명 | 휴대폰 |
|-----|------|-----|---------------|
| 집행부 | 회장 | 강희중 | 0816-798-221 |
| | 사무총장 | 방진학 | 0811-198-282 |
| | 감사 | 배응식 | 0811-993-7651 |
| | 사무국장 | 최석일 | 0811-888-9609 |

| | | | |
|----|--------|-----|----------------|
| 협회 | 검도협회장 | 강희중 | 0816-798-221 |
| | 탁구협회장 | 곽봉규 | 0815-1410-4167 |
| | 볼링협회장 | 김송정 | 0816-716-293 |
| | 용무도협회장 | 김대화 | 0811-188-2938 |
| | 골프협회장 | 한현봉 | 0811-111-5800 |
| | 태권도협회장 | 방진학 | 0811-198-282 |
| | 축구협회장 | 전용무 | 08111-009-252 |
| | 테니스협회장 | 정영규 | 0821-1032-624 |
| | 야구협회장 | 이창균 | 0815-1443-0000 |

벵쿨루 엑스포 & 국제예술문화축제 2018

벵쿨루 국제 예술 문화 축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씨오프 인도네시아 (Amar Aprizal)와 벵쿨루시 협조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서쪽에 위치한 벵쿨루주의 주도인 벵쿨루에서 매년 열리는 벵쿨루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도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벵쿨루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교역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도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벵쿨루 엑스포가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에는 벵쿨루 50주년을 성대하게 축하하는 목적으로 문화 예술축제를 기획, 러시아, 방글라데시,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벵쿨루주 다수의 예술단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음악과 민속무용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화성문화원 예술팀이 국위 선양을 위한 민속공연을 소개하며 진도북춤과 한국의 전통미를 아우르는 태평무, 화관무, 부채춤, 교방무 등 화려하고 기품있는 한국의 선과 미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환호와 지지를 얻었으며 또한 이미 크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도화선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무대 공연과 200개의 인도네시아대북과 대한민국 전통음악과 춤 협연, 벵쿨루 해변 환경 살리기 운동의 일환인 쓰레

기 줍기와 나무 심기 행사, 수카르노 하우스 탐방,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그리기 체험, 50주년 기념 환영만찬 등이다.

대한민국 화성문화원을 대표하여 한국의 전통미를 소개한 한국팀은 매 회 크나큰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또한 200여개의 대북 음악가들과의 우리 전통 악기 잼 공연은 음악엔 국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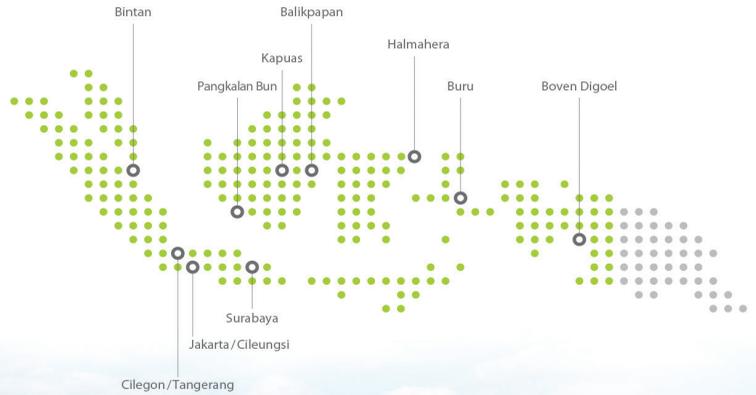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자카르타에서는 한국 문화원 천영평원장님과 한인문예총 박영동 회장님 그리고 한인문화원 사공경 원장님, 한인무용단 정방울 선생님 또한 이 모든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주신 김경애 부회장과 그림던 한식을 먹으며 장기적인 한국 문화 홍보와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약속하였다. 경기도 화성문화원 고정석 회장님과, 예총 양진춘 회장님, 화성무용협회 김정아 지부장님 그리고 씨오프 코리아 정라영 팀장은 언제나 서로에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협력을 약속 하며 아쉬운 저녁식사를 마쳐야 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는 올바른 한국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한국에서는 해외에 계시는 한인들을 위한 작은 교두보가 되길 희망한다.

(제공: 씨오프코리아 (CIOFF Korea) 해외협력팀장 정라영)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P

TRASINDO

SAMINDO

CEP

PSG



SAMTAN

GLOBAL LEADING COMPANY
IN RESOURCE & ENERGY

SBS

DONGHAE

SIMS

MINTEC

SRT

ABM

KIDECO